Weekly 공감

2009 11.11
No.36(통권 137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불멸'의 이순신 장군 미공개 유물 첫선

'노 개런티' 공연 기부 뮤지컬 배우 김선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토론회 지상중계

위기에 더 강한 대한민국 경제

크고 작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속타는 가뭄도 만났습니다

은어가 펄떡이는 강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더러워진 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행복4江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부 주도로 경기 회복세…
민간 부문 체질 강화하자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리 경제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년 만에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0.6퍼센트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에 GDP가 크게 감소했지만, 금년 1분기 중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뒤 2분기 2.6퍼센트, 3분기 2.9퍼센트의 높은 성장률을 연이어 기록했다.

일본이 올해 2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올해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가 한두 발씩 먼저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월 초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영국 대표는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위기가 곧 진정되고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경제가 한국경제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국가들은 이번 금융위기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직접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반해 우리는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았고, 견실한 재무구조 및 현금동원 능력 등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잘 견뎌 위축 정도가 적었다.

또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8~2009년 중 49조6천억원을 추가 투입했으며, 2010년에도 20조9천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재정 조기집행, 서민생활 안정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이러한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회사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4분기 이후 민간 부문은 부진했지만, 정부 부문이 경기급락을 방지하는 소방수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경제는 2002~2008년 평균 4.5퍼센트 성장했는데, 이를 민간 부문이 약 3.8퍼센트 포인트, 정부 부문이 약 0.7퍼센트 포인트 수준을 분담해왔다. 금년에는 정부 부문이 1.9퍼센트 포인트까지 성장에 기여한 데 비해 민간 부문은 −6퍼센트 포인트(1분기)까지 성장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세제 등 정부 지원도 승용차 판매 증가를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올 2, 3분기 정도의 고성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소비·투자가 3분기 들어 줄어들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점차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가, 환율, 세계경제 등 불확실성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9월에 있었던 추석이 금년에는 10월로 이동함에 따라 3분기 성장률은 높아지고 4분기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연간으로는 2, 3분기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금년 중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내수 개선도 이어지면서 4퍼센트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회복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위기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그동안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산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서민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교육제도 개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녹색성장 전략 등에 노력할 것이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11.11_No.36(통권 137호)

20

기획특집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 경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위기 극복,
7년 만에 최고 소비자지수를 기록한 내수시장,
불황 속에서도 세계 1위 제품을 지켜내고 개척하는
한국 기업들…. 한국경제가 올해 거둔 결실은
세계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더욱 빛났다.
하지만 운동화 끈을 다시 조이고, 출항 채비를 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진정한 순항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표지 설명 귀선도(龜船圖)는 충무공 이순신 종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북선 그림이다.
거북선을 크게 만들고 치장한 점으로 미루어 임진왜란 이후 조선 중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54

60

Weekly 공감

발행일 2009.11.1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35호(11월 4일자) 기획특집 '디자인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공감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동파랑 마을이라는 곳도 공공미술을 통해 달동네 같던 마을이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식도 높이고, 미적인 부분도 보완하고, 정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_ 두루누리

"지금은 곳곳에서 담에 벽화를 그리고 있지요. 대전지방조달청 옆을 매일 버스로 지나다니면서 조달청 담에 그려진 시골 풍경의 그림을 감상한답니다. 지금은 공사 현장 가림막에도 신선한 그림을 그려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답니다. 대전 도안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지요. 이참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한 것은 좋지만 그 방음벽 때문에 여행하면서 보아야 할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아쉬움이 큽니다.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에서는 목적지에 도달하여 느끼는 즐거움보다도 이동하면서 산천을 구경하는 즐거움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_ 이상록

●● 〈Weekly 공감〉 35호 전북 남원 도농 상생 페스티벌 기사에 대한 독자의 댓글입니다.

"귀농으로 행복한 미래와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환상만 가지고 갔다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직접 도와준다니 큰 도움이 되겠네요."_ 빛고을청년

●● 〈Weekly 공감〉 34호(10월 28일자) 기획특집 '푸른 농촌 희망 찾자' 와 관련해 독자들이 보내온 의견을 모았습니다.

"농촌은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농촌의 들녘에 풍년이 든 것을 보면 농민들의 땀방울로 곡식이 자라나 쌀이 나오게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토불이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면 합니다."_ 전기영

"표지부터 인상적이었어요. 아름다운 황금물결에 가득한 벼들, 약간의 초록이 남아 있는 들판이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그동안 쌀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곡식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로 '쌀맛 나는 세상'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기획특집과 더불어 고구마 박사 이준설 연구관의 기사도 좋았습니다. 다양한 색의 고구마, 다양한 맛의 고구마 신품종을 탄생시키기 위해 전국의 토양을 찾아다니신다는 연구원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가 수출 기여 품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_ 이유진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하루 1시간 동안 형광등 15개를 끄면 연간 74킬로그램의 온실가스가 줄어듭니다. 사람이 없는 빈 강의실은 소등하고, 냉난방기도 끄도록 합니다.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 1회 이용은 12.7그램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알립니다

헌혈 참여 호소문

신종플루로 헌혈자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혈액 부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헌혈 참여를 호소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신종플루로 인한 혈액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올봄부터 혈액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종플루의 확산에 비례해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일부 혈액형의 혈액 보유량이 이틀치에도 못 미치는 등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10월과 11월은 동절기 헌혈자 감소에 대비해 혈액 보유량을 늘리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동절기에는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의 집을 확대 운영하고, 등록헌혈자 및 헌혈 약정단체에 헌혈 참여를 요청하는 등 혈액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혈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부디 병상의 고통 받는 환자들이 소중한 생명의 촛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9년 11월
대한적십자사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1월 1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4호(10월 2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막상막하 2 귀리 4 남농 5 비빔밥 6 천하지대본
세로 1 막걸리 2 귀농 3 쌀밥 4 남대천 5 비선대

〈Weekly 공감〉 34호 '공감 퍼즐' 당첨자
이승민(경남 통영시 봉평동)
이화자(강원 강릉시 입암동)
정승범(전남 함평군 엄다면)
조명주(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최재영(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 로

1.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수치.
5. 아기를 낳는 비율.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합계 OOO은 1.12명을 기록 전년도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6.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 세계 1위 상품,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죠.
9.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상 거래에 의한 수지.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천6백41억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OOO 흑자와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입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 건강이나 경제활동의 상태가 차차 나아져 가는 시기.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경기 OOO에 원활한 고용을 위해 관련 예산을 28.6퍼센트 늘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로

2. 집안의 혈연이나 혼인 관계 따위를 나타낸 그림.
3. 다른 나라에 상품을 파는 일.
4.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와의 교환 비율. 외국환 시세(Rate of Foreign Exchange), 외환시세라고도 하죠.
7.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경제상태.
8. 국내에서의 수요.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극복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OO 진작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독자 ♥ 공감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군에서 근무한 김용준(63) 씨는 지금은 정보부대 전역자들의 단체인 정보동우회에서 일하고 있다. "한류스타 배용준과 이름이 같아 나도 욘사마"라며 어린아이처럼 웃는 그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국가가 부르면 지금도 전선으로 달려가 싸울 자신이 있다"고 말한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다.

- **〈Weekly 공감〉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누가 처음에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매주 사무실에 배달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친구나 애인을 기다리듯 책이 배달되는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위 사무실에도 구독을 권해요.

-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다면.**

모든 기사가 다 새롭고 기억이 나지만 특히 35호에 실린 신종플루 관련 기획기사는 나를 신종플루 전문가로 만들어줬어요. 이젠 신종플루 이야기만 나오면 원인, 과정, 증상, 조치사항 등을 사람들에게 줄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른 공공기관 매체들과 〈Weekly 공감〉의 차이점을 꼽는다면.**

다른 잡지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자기 기관 홍보나 단체장 동정 중심이라 읽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내용이 가을철 외톨 알밤처럼 알알이 영글었다고나 할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 이상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의 필요성과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사를 다뤄줬으면 합니다. 소말리아 파견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홍경석 대전 중구 산성동

1. 일부 언론이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을 침소봉대하여 확산시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요즘이다. 중점기획에서 다룬 '신종플루 괴담 현혹되지 마세요'는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었다.
2. 디자인은 국가뿐 아니라 도시와 개인의 브랜드까지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은 서로를 배려한 소통의 결과물이기도 하기에 앞으로도 적극 권장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 '독자 수필'과 '독자 디카 에세이' 등 좀 더 폭넓은 독자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면 한다. 이를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양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 신종플루에 대해 심도 있게 잘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백신 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알려주셔서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미플루에 대한 정보도 다른 매체에서 얻을 수 없는 알짜배기 정보였습니다. 〈Weekly 공감〉에서 매호 다뤄주는 신종플루 기사 덕분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도심의 공공디자인부터 4대강 디자인까지 상상 그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만 즐기는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대한민국의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각처의 노력을 알게 된 좋은 기사였습니다. 서울 발산역 근처의 상가 간판들이 모두 같은 사이즈로 바뀐 것을 봤습니다. 이것 역시 공공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제각각이고 불필요하게 너무 큰 간판들을 볼 때는 정신 사납고 정작 찾고 싶은 상가를 찾기가 힘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통일된 디자인으로 바뀌고 나니 한결 찾기 쉽고 깔끔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디자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각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어떤 동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그 반만한 크기의 비닐수거함이 있는데 오히려 주위가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11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숫자로 본 순항기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신종플루 옮을까 걱정하셨다면…

안심하고 '헌혈'하세요

신종 인플루엔자A(H1N1 · 신종플루)로 인해 10월 들어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헌혈 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다. 이는 근거 없는 과잉반응이다. 신종플루와 헌혈의 관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종플루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헌혈된 혈액을 통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위험은 없나.

이번에 유행하는 신종플루뿐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잠복기에 혈액에 존재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혈을 통해 전파된다는 의학적인 증거도 아직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헌혈을 통한 신종플루 전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헌혈을 하기 전 헌혈자에게 신종플루와 관련된 열감, 콧물, 인후통,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고, 체온을 측정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헌혈자들에게 헌혈한 뒤 48시간 이내에 신종플루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혈액원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되지 않은 혈액은 모두 회수해 폐기한다. 만약 수혈된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이를 알려 수혈받은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고 있다.

헌혈자의 혈액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는 하지 않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혈중에 존재하는 시간이 짧아 실효성 있는 혈액검사법은 없다. 무엇보다도 증상이 있는 분들이 헌혈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과 긴밀한 접촉을 한 경우에 헌혈을 해도 상관없나.

감염자와 긴밀한 접촉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염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헌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확실한 감염자와 오랜 시간 접촉했다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1주일 정도 헌혈을 피하는 게 좋다.

단체 헌혈을 하고 나서 해당 단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

해당 환자가 헌혈을 했다면 그 혈액은 회수해 폐기한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의 혈액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추가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면 안심해도 좋다.

혈액관리 측면에서 신종플루가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사람들의 활동 자체가 감소돼 헌혈 동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경우에는 혈액 공급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신종플루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이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신종플루 영향으로 헌혈자가 크게 줄어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청와대 직원들이 11월 5일 경내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신종플루가 현재 혈액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나.

대한적십자사는 멕시코에서 처음 신종플루가 발생한 지난 4월 이후 평년 대비 4일분 이상 약 10일분의 혈액 재고를 확보해왔지만, 9월 이후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현재 혈액 보유량은 3일치에 그친다. 특히 O형과 A형의 혈액 보유량은 2일치에도 못 미쳐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헌혈자가 감소하면 당장도 큰 문제지만 동절기에 정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신종플루 환자가 더 먼저, 더 많이 발생한 미국이나 일본의 상황은 어떤가.

혈액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거의 모든 나라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혈자와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헌혈로 인한 신종플루 감염 위험성은 거의 없으므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헌혈해도 좋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다. 병상의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헌혈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G

정리 · 최호열 기자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단계 심각으로 조정

11월 11일 초중고교부터 접종 시작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에 대응한 국가 전염병 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신종플루 확산 방지와 대응, 이에 대한 지원에 한층 더 신속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동아DB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형할인점에 쇼핑카트 소독용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돼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종플루 국가 전염병 경보단계가 11월 3일부터 '경계'에서 '심각'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단계를 상향 조정하면서 11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 전염병 경보단계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의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이번 경보단계 조정은 최근 감염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신종플루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현재에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과 사회적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번 경보단계 조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특별한 큰 변동이 생기지는 않는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더불어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별 대책본부가 구성돼 상시 가동된다.

시도 대책본부는 지역별 환자를 예측해 입원 병상과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등 의료자원 동원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과 홍보를 담당한다.

또 기존 거점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중환자실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내하는 등 병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일상생활 큰 변동 없어

입원 병상은 기존의 4백72개 치료 거점병원 입원 병상 8천9백86개와 중환자 병상 4백41개를 활용한다.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경우에는 거점병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2백60개를 중심으로 추가 입원 및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게 된다. 부족 시에는 거점병원뿐 아니라 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당초 6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던 학교 예방접종은 1, 2주 당겨 4, 5주에 걸쳐 빠르게 진행된다. 정부는 학교 예방접종에 기

존 확보된 의사 인력 9백45명(공보의 6백31명 포함) 외에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항바이러스제는 연말까지 약 1천1백만명분(전 국민의 20퍼센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12월까지 적극적으로 투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번 경보단계 조정과 관련,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학교 예방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2월 초까지 총력 대응함으로써 신종플루 유행과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군 훈련이 11월 5일부터 잠정 중단되고, 군 장병의 휴가도 일부 중지된다.

국방부는 11월 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주재로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확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현재 시행 중인 올해 예비군 훈련은 이날 오후 5시 부로 종료하는 등 11월 말까지 계획된 예비군 훈련 전체를 잠정 중지키로 했다.

입원 병상 · 중환자실 등 확보…지역별 본부 상시 가동

군 장병 휴가의 경우 자대 전입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휴가와 전역 직전에 실시하는 3차 정기휴가, 경조사 및 수능시험 등에 따른 청원휴가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그 외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장병 휴가가 전군 차원에서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휴가 후 복귀한 장병은 건강검진을 받고 일주일간 격리생활을 한 후 생활관(내무반)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밖에 노동부는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병가나 공가가 필요한 경우 신종플루 확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간이검사) 결과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처방전, 진료영수증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11월 5일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1월 4일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녹십자의 백신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초중고교생 대상 신종플루 백신 접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는 지난 9월 21일부터 6주간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임상시험 결과 만 9~18세(15마이크로그램 접종)에서 당초 예상대로 1회 접종만으로 나타나는 항체 생성률이 82.6퍼센트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백신효과 허가기준(70퍼센트)을 만족했다. 다만 6개월 이상~3세 미만(7.5마이크로그램 접종)의 경우 1회 접종에서 낮은 항체 생성률을 보임에 따라 2회 접종 결과가 나오는 11월 중순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9세 이상은 성인처럼 한 차례만 맞으면 되고, 만 3~8세는 두 번 맞으면 된다.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11월 1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취학 전 어린이는 12월 초 민간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임상시험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등 가벼운 증상 외에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 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군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저소득층 · 수능 대비 안전대책

수능시험장에 분리 시험실 휴교 저소득층 아동엔 도시락 배달

11월 12일 치러지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장의 신종플루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24일 발표된 신종플루에 대비한 수능시험장 대책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11월 5일 밝혔다.

먼저 수능 당일 전국 1천1백24개 시험장마다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이 2개씩 설치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2천2백67개의 분리 시험실이 확보됐다. 신종플루로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준비키로 했던 병원 시험장도 87개 모두 섭외가 완료됐다.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학생을 미리 진단하기 위해 각 학교는 수능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 9일)과 화요일(11월 10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수능시험 하루 전날 각 시험장에서 하는 예비소집 때도 수험생 대상으로 발열검사가 진행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로 휴업에 들어간 학교를 대상으로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휴일이나 단기방학에 준해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식당을 지정해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는 지난 9월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 앞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실시하고, 부산에서도 부산지역 관련 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 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독일 국민은 이제 수도 통합 원해"

한국을 방문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치논리로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많다"며
"한국은 이미 행정수도 분리를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10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정운찬 국무총리를 예방해 환담하고 있다.

"독일도 수도를 분할해놓고 보니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도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11월 4일 한국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논리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한국과 독일은 출발점이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국의 문제는 각자 결정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뗀 뒤 "한국은 행정수도 분리를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뢰더 전 총리는 수도 분할의 부작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한곳에 있지 않으면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의회, 행정부, 사법부, 언론 등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은 한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 분할을 강하게 만류하는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행정부처를 본과 베를린으로 분할한 뒤 매년 공무원들의 출장에 따른 교통비와 체류비로만 1천만~1천2백만 유로(약 1백74억~2백8억원)가 지출되고 있다. 또 분할된 행정부처를 베를린으로 통합하는 데만 50억 유로(약 8조7천3백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어"

슈뢰더 전 총리는 11월 3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독일은 통일 이후 베를린과 본으로 행정수도가 나뉘면서 좋은 경험은 하나도 없고 나쁜 경험들만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행정부처 분할을)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 분할로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지만 이런 비용 문제도 국가적 손실 차원에서 보면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의회와 행정부가 한곳에 있지 않으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 분할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헛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 다른 한쪽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한국은 행정수도 분리를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한곳에 있지 않으면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회, 행정부, 사법부, 언론 등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은 한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들어 "특정 부처가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면 모든 부처가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니 나중에는 핵심 부처와 인력은 베를린으로 모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행정부처들만 본에 남는 상황이 일어났다"며 수도 분할의 명분으로 삼는 지역균형발전도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본이 '베를린의 미끄럼틀'로 전락했다고 비유했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핵심 부처들은 베를린에 남고 그렇지 않은 부처들은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본으로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정부 부처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크게 웃었다. 그는 "한국의 상황은 한국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독일도 통일 이후 정치논리에 의해 수도가 분리됐고, 이제는 이를 통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덜 받은 것은 그동안 독일이 꾸준히 추진해온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감세정책 덕분이었다"면서 "2003년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행한 경제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의 결과가 이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슈뢰더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만성적인 '독일병'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개혁이 어려운 까닭은 정책 입안과 집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차'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견해의 유권자들을 설득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젠다 2010'의 내용과 추진 배경은.

과다한 사회보장체계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통일 후유증으로 경제성장률이 유럽 평균 밑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실업률이 매우 높았다. 이런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젠다 2010'을 추진했다. 이 계획을 저돌적으로 추진한 결과 독일경제는 이제 위기에도 강한 체질을 갖게 됐다.

개혁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을 텐데.

당시 노동계는 개혁안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심각한 위기에 빠진 독일경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심정도 무거웠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따라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경제가 좌우 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가 더 나은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성장통'이다. G20 정상회의가 새로운 세계경제 시스템의 틀을 짜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본다.

각국이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세계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다.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교육(Education) 등 '3E 정책'을 고려하면서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보는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투기성 짙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위기 대처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세계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는.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남북 정상의 대화는 북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 구상은 올바른 결정으로 보인다. G

글 · 성선화(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위원단

과학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상상도다.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추진되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발전 방향 토론회

“연구·교육·문화·비즈니스 이어져야”

과학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곳이 바로 과학비즈니스벨트다. 학교와 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관련 포럼이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과학기술 이슈토론회를 11월 2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문제와 분리해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기술력 확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도시 사례’ 발표에 이어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가 ‘거점지구 도시공간 개념’을, 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이 ‘거점지구 도시공간 조성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RTP(Research Triangle Park), 독일 드레스덴 등 기존 과학비즈니스도시의 예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과학비즈니스도시도 이들 도시처럼 ‘기초연구–응용연구–기술 사업화–첨단산업 생산–마케팅 지원–글로벌 컨벤션’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점지구 내에 새로운 과학 및 산업시설을 설립하는 것뿐 아니라 기능지구에 이미 구축된 기업지원기관과 연계함으로써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기능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교육–비즈니스까지 이뤄지는 국제적 과학도시”

그는 특히 거점지구 내에 첨단융합단지를 조성해 기초과학을 활용한 사업화 테스트베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첨단융합단지 유치대상 업종은 환경친화적 저탄소 녹색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LED, BT·IT 융복합산업 등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새로운 창의적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도시, 진화하는 도시로 항상 앞서가는 똑똑한 도시 구현, 최상의 건축 품질로 다시 방문하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등 7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이 교류돼 생산, 교육, 매매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장소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과학 전 과정이 집적화되고 순환되면서 다른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과학과 산업이 만나는 곳, 일반 시민과 과학자가 만나는 곳, 살기 좋은 도시와 과학도시가 만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은 도시개념 연구로부터 제시된 최적화, 진화, 아름다움, 소통, 창조, 친환경, 경제 등 7가지 전략을 반영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공간 조성전략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의뢰를 받아 작업한 도시 공간설계 내용이 이날 처음 공개된 것이다.

"첨단복합단지처럼 공모하는 것도 고려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중이온 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해외 연구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해 교육단지와 지식산업단지 등이 주변에 분포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벨트의 중심 시설은 '+' 모양의 녹지공간으로 분리해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중이온 가속기는 차후 확장을 고려해 약 3백만 제곱미터로, 기초과학연구원은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며, 부지는 약 23만 제곱미터로 잡았다.

민 센터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는 기존의 연구, 산업, 사업화모델이 결합해 새로운 창의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개발지구"라며 거점도시 조성전략으로 과학 기술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국제교류도시, 과학과 문화의 소통을 통한 창조문화도시 등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 도시 형태를 제시했다.

이들 발표에 이어 박방주 과학기자협회 회장,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조만형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전영기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등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건설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상민 의원은 "당초 세종시 건설안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전제 하에 자족기능의 하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는 용도로 악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아직 과학기술계의 전폭적인 공감대가 구축되지 않은 만큼 알차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활발한 논의가 선행되고 독자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아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가장 비정치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정치권과 정부가 정치와 별개로 국민 미래를 위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최근 논의를 보면 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략적으로 악용되다 본 취지를 상실하고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표류한다면 차라리 정부가 첨단복합단지처럼 공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위원단

11월 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포럼이 열렸다.

전영기 중앙선데이 편집국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우주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핵물리학자의 순수한 관심에서 시작됐다"며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며, 정치권은 하루 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대전 인근지역이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대덕연구단지의 과학 역량과 세종시가 제공하게 될 행정 역량이 합쳐지면 바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향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조만형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은 효율성을 감안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전 인근에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회장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대덕단지가 있고 세종시가 들어서는 대전 인근지역이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며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된 만큼 대덕연구단지가 가진 과학 역량과 세종시가 제공하게 될 행정 역량이 합쳐지면 바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향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와 함께 하면 안 된다"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G

글 · 안경애(디지털타임스 정경과학부 기자)

애타게 찾는 아이, 꼭 찾게 현재 얼굴로…

장기실종아동 찾기 획기적 대안… 현재 모습 추정 사진 배포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조차 없는 부모들. 바로 장기실종아동들의 부모들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현재의 모습 추정 사진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

장기실종 아동 찾기

이정훈 (1973년 3월 18일 실종)
당시 4세➡현재 40세
Tel 성북경찰서 02-920-1583

박순영 (1996년 3월 1일 실종)
당시 6세➡현재 19세
Tel 남대문경찰서 02-2096-8403

유준호 (1999년 3월 25일 실종)
당시 3세➡현재 13세
Tel 강동경찰서 02-483-4073

최준원 (2004년 4월 4일 실종)
당시 6세➡현재 15세
Tel 중랑경찰서 02-948-7112

최재혁 (2002년 10월 5일 실종)
당시 2세➡현재 9세
Tel 광진경찰서 02-457-7595

조하늘 (1995년 6월 16일 실종
당시 4세➡현재 18세
Tel 구로경찰서 02-830-6756

김륜아 (2001년 8월 23일 실종)
당시 4세➡현재 12세
Tel 강동경찰서 02-483-4073

장기실종아동들의 실종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을 추정한 사진. 현재 모습은 장기실종아동의 외형적 특성과 가족의 사진 등을 종합해 재구성했다.

1973년 당시 네 살이던 이정훈 군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골목에서 엄마가 잠시 아빠를 배웅하는 사이에 사라졌다. 이후 어머니 전길자 씨는 어린 아들의 사진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 사이 36년이 흘렀다. 꽃다운 새댁이었던 어머니는 백발의 노인이 됐지만 어딘가 살아 있다면 마흔 살이 돼 있을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네 살 때 모습 그대로다. 어머니 전 씨는 지금도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을 돌며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1995년 네 살이던 조하늘 양 역시 지금은 18세 청소년으로 성장했겠지만, 전단지 사진은 여전히 네 살에서 멈춰 있다. 다른 장기실종아동들의 전단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 장기실종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실낱같은 새 희망이 생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월 2일 미국 전미실종아동센터(NCMEC)의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장기실종아동 7명의 현재 모습을 추정한 종합수배전단을 전국 경찰서 및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부모 동의하에 만들어진 현재 모습은 장기실종아동의 신체·외형적 특성과 가족의 과거·현재 사진 등을 종합해 재구성한 것이다.

경찰이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롭게 제작한 종합수배전단에는 이정훈 군과 조하늘 양을 비롯해 1996년 서울 중구

에서 실종된 박순영(여·당시 6세) 양, 2001년 강동구에서 실종된 김륜아(여·당시 4세) 양, 2000년 중랑구에서 실종된 최준원(여·당시 6세) 양, 2002년 광진구에서 실종된 최재혁(당시 2세) 군, 1999년 강동구에서 실종된 유준호(당시 3세) 군 등의 현재 모습이 담겨 있다.

길 잃은 아이를 지구대에만 인계한다면 1백 퍼센트 찾을 수 있다. 아이를 지구대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인계하는 모든 행위는 대형 범죄행위임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실종아동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얼굴변환 프로그램은 포토샵을 활용해 장기실종아동의 나이에 따른 얼굴 변화 모습을 추정하는 기술이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실종아동의 실종 당시 사진과 부모 형제의 성장에 따른 모습 변화를 종합함으로써 이번 재구성 사진을 얻었다.

이 사진들은 부모와의 상담에서 얻은 실종아동의 얼굴 특징, 누구와 닮았는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얼굴변환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현재 18세 된 실종아동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면 어머니의 18세 사진이 많이 고려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이영실 경사는 "실종된 지 여러 해가 지난 장기실종아동의 경우, 실종 당시 사진으로는 수사나 수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모습을 추정한 전단지를 제작하게 됐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장기실종아동 220여 명…가족들 "일말의 희망"

이 경사는 이어 "장기실종아동을 둔 부모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상담 과정에서도 과거 아이의 모습과 특징, 당시 상황 등을 이야기하며 눈물짓는 모습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웠다"고 가족들의 아픈 현실을 전했다.

장기실종아동 조하늘 양의 아버지 조병세 씨는 "1백 퍼센트 하늘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놓고 찾아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1퍼센트의 가능성이라도 더 생긴다면 우리로서는 희망이 보이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어린이 실종신고는 7천여 건에 달한다. 이 중 99퍼센트가 부모 품에 안전하게 돌아가지만 일부 어린이는 장기실종아동으로 남는다.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김미애 팀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상 지난 어린이들을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한다. 장기실종아동도 일주일 안에 대부분 찾을 수 있지만 몇몇 어린이들은 실종 상태가 길어져 장기실종아동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장기실종아동은 약 2백20여 명. 그중에는 실종기간이 1~5년 된 장기실종아동이 가장 많다. 아이가 사라지고 나면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당연히 아이들의 부모다. 이들 장기실종아동의 부모를 가까이서 지켜본 김 팀장은 "숨만 쉴 뿐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가 실종되면 가장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생계를 뒤로 하고 아이 찾기에 전념하게 된다. 그 상태가 길어지면 빈곤이 가속화되며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다. 경제적 고통보다 더욱 심한 것은 마음의 고통이다. 밥상을 대할 때,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 길을 걷다 또래 아이를 만날 때, 매 순간 '아이가 없다'는 생각이 새롭게 각인되며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는 말 그대로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이다.

그렇다면 장기실종아동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김 팀장은 "최근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정식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다면 대부분 찾을 수 있다. 미인가 보호소라고 해도 경찰에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찾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스템에 걸리지 않는 구멍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이 말한 '구멍'이란 부모를 잃어버려 울고 있는 아이를 자기 멋대로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해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서너 명씩 임의로 데려다 키우거나, 심지어 남에게 맡기는 경우다.

이렇게 실종된 아이들은 일일이 수소문하는 것 외에는 찾을 길이 막막하다. 게다가 장기실종은 아동학대, 입양 등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어린이 문제와 달리 그 수가 적고 접근방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 부모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김미애 팀장은 "지금은 길 잃은 아이를 지구대에만 인계한다면 1백 퍼센트 찾을 수 있다. 아이를 지구대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인계하는 모든 행위는 대형 범죄행위임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실종아동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G

글·최철호 객원기자

동아DB

서울지방경찰청은 장기실종아동의 현재 모습을 유추해 새롭게 제작한 종합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실종가족의 품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가운데가 36년 전 실종된 아들 이정훈(당시 4세) 군을 찾는 전길자 씨.

'불멸'의 이순신

11일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미공개 유물 첫선

宣武功臣敎書
선무공신교서

보물 제1564호로, 선조가 1604년 10월에 이순신을 선무1등공신 덕풍부원군에 봉하고 상급을 내린 교서다. 이순신의 임진왜란 중의 공적, 선무공신 책훈, 상급 및 특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됐다. 11월 1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2009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에서 특별 전시하는 충무공의 유물 13점에는 충무공의 업적과 노고를 치하하는 선조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미공개 유물이 일반에게 처음 공개된다. 문화재청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2009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충무공의 유물을 세상 밖으로 내놓는다.

이번 특별 전시에서는 지난 4월 종가에서 기탁한 유물 1백62점 가운데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가치가 뛰어난 유물 12점과 현충사관리소가 소장한 보물 제1564호인 선무공신교서(宣武功臣敎書) 한 점을 더해 총 13점을 공개한다.

종가 기탁 유물 중 기복수직교서(起復授職敎書), 둔전검칙유지(屯田檢飭諭旨), 호상교서(犒賞敎書) 등은 그 가치와 역사성 등에서 보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이길배 서기관은 "이번 전시는 현충사관리소에 기탁된 충무공의 유물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은 올해로 3회째. 개최지인 여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와 전라좌수사를 겸임했던 지역이라 남다른 의미가 있다. 더욱이 올해는 '이순신과 거북선 이야기'라는 색다른 주제로 예년과는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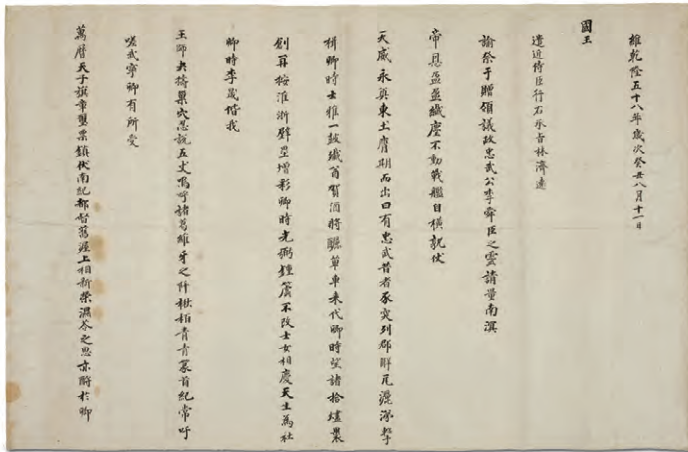
글 · 김지영 기자

屯田檢飭諭旨
둔전검칙유지

1595년(선조 28년) 1월 21일 선조가 통제사 이순신에게 군량 확보와 백성 구휼 등에 적극 힘쓸 것을 당부한 글.

宣武功臣左議政贈職敎旨

선무공신좌의정증직교지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4년 7월 12일, 이순신에게 선무1등공신과 좌의정을 증직하고 덕풍부원군으로 봉한다는 교지다.

贈領議政賜祭文

증영의정사제문

1793년 7월 21일 정조가 충무공 이순신에게 영의정을 증직하고 그해 8월 11일 우승지 임제원을 보내 제사한 제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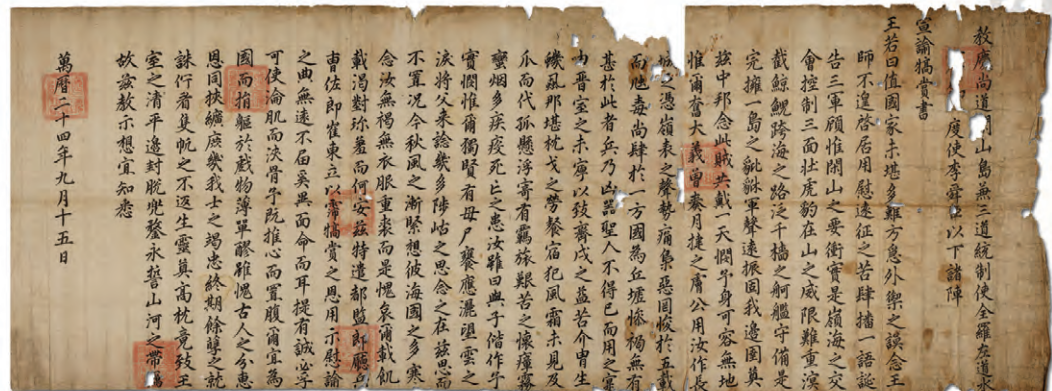
尙州方氏貞敬夫人敎旨

상주방씨정경부인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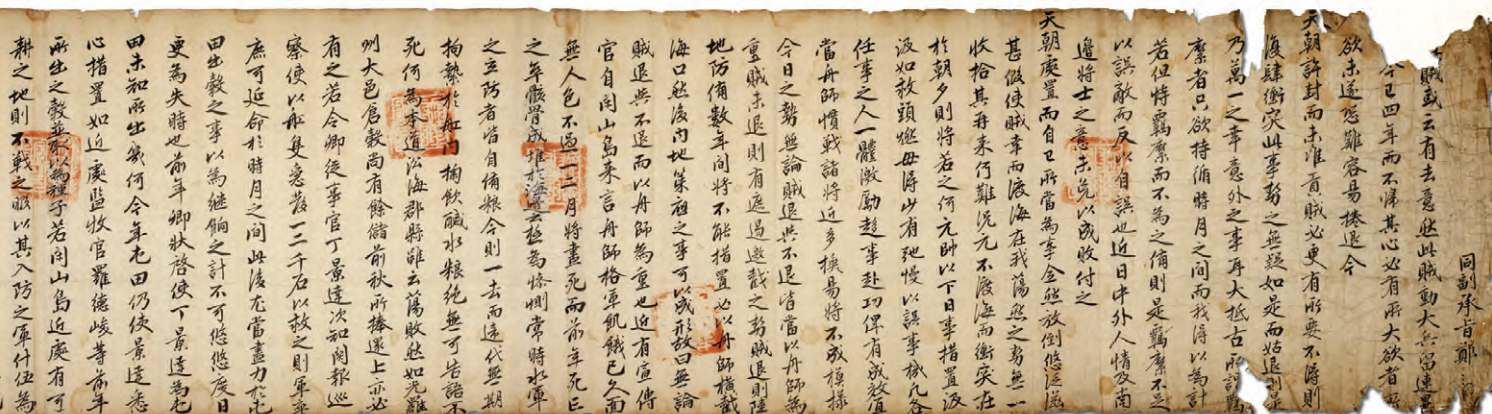
1598월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에게 그해 12월 4일 우의정을 증직함에 따라 그 처인 상주 방씨를 외명부 1품직인 정경부인으로 봉하는 교지다.

龜船圖

귀선도

충무공 이순신 종가에 전해 내려오는 거북선 그림. 임진왜란 이후 조선 중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犒賞敎書

호상교서

선조가 1596년 9월 동절기에 접어들어 어려움에 처한 통제사 이순신 이하 각 진영의 군사들에게 병조좌랑을 보내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며 노고를 위로한 교서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당신의 웃음이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7~10년 전매제한되며,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일부 떴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통장 불법거래 시
청약기회를 상실하거나 형사처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 지연 및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보금자리주택 – new

"보금자리주택 부정거래가 당신의 환한 웃음을 앗아갑니다"

보금자리주택 투기는 사회의 공적입니다

국토해양부
www.mltm.go.kr

LH
www.LH.or.kr

대한민국 경제
GDP 서프라이즈
세계가 놀랐다

한국경제는 '사상 초유'로 불리는
세계적 경제위기 한파 속에서 암울하게 2009년을 맞았다.
그로부터 근 1년.
한국경제는 뜻밖의 수확을 거두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위기 극복,
7년 만에 최고 소비자 심리지수를 기록한 내수시장,
불황 속에서도 세계 1위 제품을 지켜내고 개척하는 한국 기업들,
외환위기 재연설까지 나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외환보유액…. 한국경제가 올해 거둔 결실은
세계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더욱 빛났다.
하지만 운동화 끈을 다시 조이고, 출항 채비를 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진정한 순항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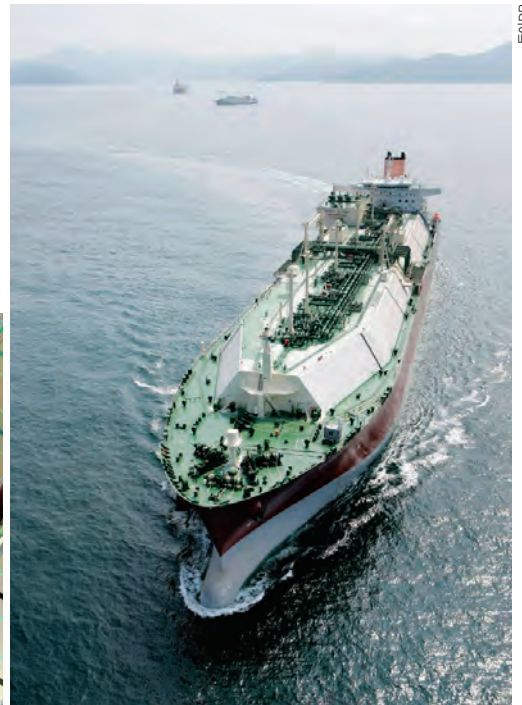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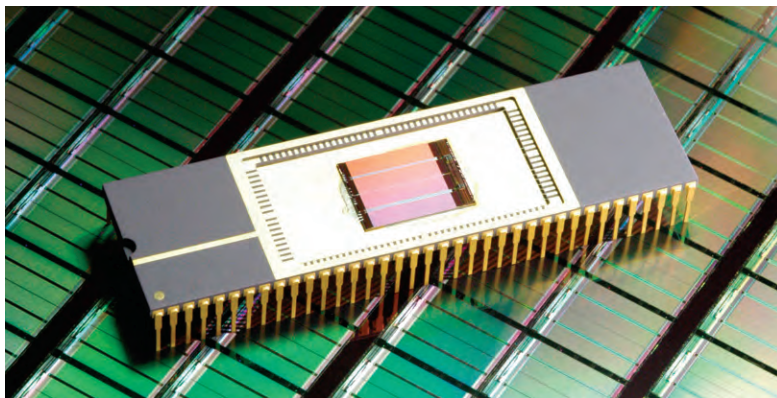
일러스트 · 이우정

위기에 더욱 강하다

NO.1 KOREA

글로벌 경제위기, 분명 크나큰 시련이었다. 하지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은 한국과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더욱 빛났다. 곳곳에서 빛난 '넘버원 코리아'들, 이들은 한국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들이었다.

동아DB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1등 제품들. 반도체와 TV, 냉장고, LNG선과 오토바이 헬멧 등이다.

No.1 TV!

지난 10월 26일 삼성전자는 TV용 패널로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 3.9밀리미터의 발광다이오드(LED) TV용 패널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니들 슬림(Needle Slim)'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제품은 TV의 한계로 여겨지던 3밀리미터대 두께에 도달한 세계 최초의 초박형 TV다. 첨단기술은 세계시장 제패의 가장 중요한 무기다. 한국의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액정표시장치(LCD)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넘버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 3분기 세계 LCD TV 시장에서 합계 33.4퍼센트의 점유율을 기록, 17.4퍼센트에 그친 일본 업체(소니, 샤프)를 크게 앞섰다.

No.1 반도체!

반도체소자 기업인 알에프세미는 'ECM칩'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43퍼센트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일본의 글로벌 기업인 산요, 도시바, NEC 등과 경쟁해 이룬 업적이기에 더욱 돋보인다. ECM칩은 휴대전화, 이어폰, 캠코더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마이크로폰에서 목소리 등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중요한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11월 4일 세계 최초로 0.6밀리미터 두께의 8단 적층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 회로 층이 쌓이는 만큼 용량이 늘어 휴대기기용 반도체 제조에 적합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술 개발로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50퍼센트대인 휴대기기 메모리용 복합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No.1 외환보유 증가국!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올 들어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가 최근 62개 주요 회원국의 2009년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천4백54억5천9백만 달러로 지난 1월 2천17억4천1백만 달러에서 무려 4백37억1천8백만 달러가 늘었다. 특히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연말까지 2천7백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돼 한 해에만 무려 7백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측불허'. 지난해 9월 무렵 한국경제의 앞날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파편을 맞은 한국경제는 늘어나는 단기 외채와 줄어드는 외환보유액, 외신들의 잇따른 부정적 보도 등으로 지난해 말의 외환위기설, 올 2월의 '3월 위기설'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1년이 지나면서 한국경제는 신기록 작성에 매진하고 한국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과 연이은 제품 히트, LG전자의 TV 시장 2위 등극, 현대자동차의 미국시장 석권 등이 우리 기업들이 거둔 굵직한 성과들이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위기탈출 속도는 가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해 가을 한때 외채상환이 우려됐던 한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2.3퍼센트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현재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위기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증시 역시 전 세계 증시 가운데 '리먼 사태'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7일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 증시의 주요 지수를 대상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8월 말에서 올해 8월 말까지 1년간 등락률을 조사한 결과 터키가 16.83퍼센트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한국의 코스피(KOSPI)지수가 7.98퍼센트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증시들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어서 사실상 주요국 가운데에서는 한국증시만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5대 은행인 BNY멜런은행의 리처드 호이 수석 경제분석가는 투자설명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11월 3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코스피를 주목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한국증시의 코스피 등락을 OECD 경기지수나 수익률 곡선과 함께 세계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의 위기탈출 속도는 가히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현재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위기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들도 앞 다퉈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IMF는 지난 4월 -4.0퍼센트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9월에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지난 5월의 1.5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올렸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지난해 말 한 단계 낮췄던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지난 9월 '안정적'으로 원상 복귀시켰다.

"민간경제 자생력 회복 위한 고용여건 개선 정책 필요"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8.1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68.8퍼센트, 56.5퍼센트 급감했고, 대만과 중국도 51.3퍼센트, 17.5퍼센트 줄었다.

물론 여전히 국내외 위험 요인은 잔존한다. 아직 높은 실업률, 부동산 버블 등 국내 요인뿐 아니라 환율 등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 CIT그룹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경제의 회복은 완만하겠지만 이미 경험한 위기가 다시 올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재정 부담을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나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경제의 자생력이 중요해진다"고 예측했다. 임 연구위원은 "민간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고용 여건을 개선해 실질구매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과감한 재정지출과 기업들의 경영혁신에 힘입어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위기극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경제. 민간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2의 도전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한때 외환위기설까지 나돌던 한국은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회원국 중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됐다.

2009 우리 경제
-4% 비관에서 0% 희망까지

한때 외환위기 재연설까지 나돌며 국제적 신용하락의 수모를 겪은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에서 낙관으로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극과 극을 오간 한국경제의 지난 1년을 수치로 들여다보자.

동아DB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퍼센트까지 낮췄던 IMF가 한국경제의 급속한 회복과 함께 3차례나 한국경제 전망을 상향했다.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수정 시기	2009년 성장률	2010년 성장률
2009년 2월	-4%	4.2%
4월	-4%	1.5%
7월	-3%	2.5%
8월	-1.8%	2.5%
9월	-1%	3.6%

롤러코스터가 달리는 곳은 놀이공원만이 아니다. 지난 1년, 한국경제 곳곳에서는 롤러코스터가 내달렸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종합주가지수 8백92포인트까지 바닥을 찍고 올 9월 1천7백23포인트까지 회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최근 조정을 받으며 1천5백대 중간에 머물러 있지만 큰 폭의 추가하락은 없다는 믿음으로 하방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과 호평의 극과 극을 내달렸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대미문'이라는 암울한 정체를 드러내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5퍼센트로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는 급격하게 진행됐고, 한국의 외환위기 재연설을 제기한 외신들의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3퍼센트로 수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5.1퍼센트를 기록했다. 3분기에 비해 경제 규모가 5.1퍼센트나 줄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가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모양새였다. '3월 위기설'이 한창이던 올 2월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차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퍼센트로 낮췄다.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번진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한 때여서 '-2퍼센트'가 높다는 지적마저 있었다.

한국 내부의 평가보다 외부의 평가는 더욱 가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수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2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무려 6퍼센트 포인트나 낮췄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 IMF가 함께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 역시 지난해 11월의 2.2퍼센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인 0.5퍼센트로 수정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주된 이유가 최악의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급감과 내수 위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회복 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를 것"

201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암울했다. IMF가 지난 2월 수정보고서에서 2010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4.2퍼센트 성장'을 예상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지만, 지난 4월 발표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 채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월의 4.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췄다.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던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난 4월을 고비로 급변했다. 지난 4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OECD는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서 한국의 2월

CLI가 94.5로 전달의 92.9보다 1.6포인트 증가하며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6퍼센트 상승하며 당초 정부 전망(1.7퍼센트)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3분기에도 2.9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7년 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지난 6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0퍼센트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정책포럼에서 연설하면서 "한국경제가 3분기에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으며, 민간소비와 투자도 점차 한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한국경제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MF 역시 -4.0퍼센트(4월)까지 낮췄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3.0퍼센트)과 8월(-1.8퍼센트), 9월(-1.0퍼센트)에 잇따라 높였다.

IMF의 아누프 싱 아태국장은 10월 3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강력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작용할 것 같다"며 IMF가 한국의 올해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쳤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설립한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의 얀 프리드리히 세계전망 담당이사는 11월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기존의 -1퍼센트에서 0.6퍼센트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2.8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올려잡았다. IMF의 '-4퍼센트 전망'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급격한 회복은 정부의 경기안정화 정책이 저금리 정책에 가세해 경기침체를 막았고, 올 2분기부터 민간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이 빠르게 회복된 데 힘입었다"며 "수출과 내수의 동시 회복이 기업의 생산을 증대시켜 경제성장률을 빠르게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채정태 S&P 한국지사 대표 "한국 내년 경제 성장치 매우 긍정적"

"한국이 2010년에는 4~4.5퍼센트의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 초 전망치보다 높습니다."

S&P 한국지사 채정태(49)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에 S&P 역시 동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영국계 버클레이즈은행, 미국계 보스턴은행 등 굵직한 글로벌 은행에서 일해온 채 대표는 2000년 8월 S&P 한국지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S&P 한국지사를 맡아오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S&P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습니다. S&P의 현재 예상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1~0.5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S&P가 몇 달 전 내놓은 전망치보다 훨씬 긍정적이며, 향후 추가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경제 전망치가 상향되는 국가가 한국 이외에 또 있는지요.

S&P는 최근 한국 외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2009년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이외에도 대만, 필리핀, 태국의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효율적 관리와 글로벌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2011년에는 성장세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한국 등 아시아 경제회복세가 빠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회복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뤄졌습니다. 각국의 강력한 통화정책과 강도 높은 재정 부양책,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인해 아시아 상품 수요가 증가한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의 위기대응 정책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 정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적 대응정책의 흐름과 일치해 성공적으로 진행돼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소 진정된 현재 상황에서 세계 모든 국가의 향후 과제는 순차적인 출구전략을 통한 경기회복세 유지입니다. 각국 정부의 역량은 이 출구전략을 통해 테스트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CIT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더블 딥'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위기가 재연될 수 있을까요.

파산이라는 것은 통상 '위기의 후행지표'라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상당수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최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고 있지 못해 경기회복 와중에도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따라서 파산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파산 자체가 경기회복세의 약화나 침체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협 요인이 분명 있습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대표적입니다. 또 경기부양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높은 차입 요건을 적용한 결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사안입니다. 이는 경기회복세 유지에 필수적인 민간소비의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철 기자

동아DB

우리나라는 수출 호조와 신속한 경제회복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으로 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사진은 '바이코리아 2009 가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업체 관계자들이 수출상담을 하는 모습.

외신이 감탄하는 한국경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 극복한 코리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9퍼센트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세계를 덮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탈출한 나라"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퍼센트로 당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분기별로는 3.8퍼센트를 기록했던 2002년 1분기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년 만에 0.6퍼센트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서비스업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성장률은 당초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서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사실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다우존스뉴스와이어〉 등의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한국의 3분기 GDP가 2분기 대비 2퍼센트 정도 증가할 것이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앞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10월 27일 "한국의 GDP는 3분기 중 2.9퍼센트 깜짝 상승해 한국을 글로벌 경기하강에서 더욱 멀리 떼어놓았으며 정부에 좀 더 폭넓은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27일 또 다른 기사를 통해 "이 같은 경제지표의 개선은 소비자 지출, 기업투자 그리고 제조업 생산이 모두 늘어나는 등 다각도로 호조를 보인 덕분"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출은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해 지금 경제는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GDP 깜짝 상승 글로벌 경기 하강에서 탈출"

미국의 〈블룸버그뉴스〉는 10월 26일 '한국 GDP, 7년래 최대 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성장률을 보도하면서 "2002년 1분기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이며,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평균 추정치인 1.9퍼센트를 웃도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10월 26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의 3분기 GDP가 계절조정을 거쳐 2.9퍼센트 상승해 로이터의 예상치 2.2퍼센트를 웃돌았으며 2002년 1분기 이래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언론매체들 역시 한국의 3분기 성장에 놀랍다는 반응

을 보였다.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지역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강한 수출 부문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어 신문인 〈원후이바오(文匯報)〉도 '한국 3분기 성장 7년 만에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 발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놀라운 수준이며 연간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높은 GDP 성장률이 '아시아 경제회복의 신호'라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0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아시아의 성장 전망치를 2배 이상 올리고, 2010년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종전의 1.6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올렸다. 이 신문은 또 10월 27일자 아시아판 1면에서 "한국이 중국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 3분기에 7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면서 "이는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 및 무역침체 극복을 주도하고 있음을 부각시켜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이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 앞서 경기회복 경향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고, 〈블룸버그뉴스〉도 한국이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외국의 경제 분야 인사와 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09' 참석차 방한한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11월 3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는 지금 강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며 "3분기의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꼽히고, 지난 7년간 한국 자체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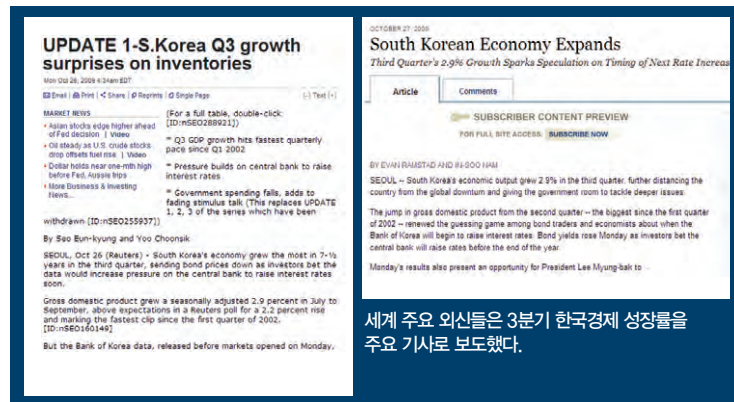
그는 또 "정부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도 민간의 힘으로 끌어올린 방식이 성장세 자체보다 더 놀랍다"며 "이런 형태의 성장으로는 몇 년간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11월 2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기가 V형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퍼센트 반등했다"며 "이는 당사의 시장 기대치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산업 생산량 회복은 수요 회복에서 기인했다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의 생산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모건스탠리는 또 "수출 수요 가속화 등을 감안할 때 4분기에도 산업 생산량 부문의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제3차 OECD 세계포럼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구리아 총장은 10월 27일 벡스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전 분기 대비 2퍼센트씩 성장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면서 "한국경제 미래가 밝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 "4분기에도 산업 생산량 증가세 이어갈 것"

그는 또 "정부가 전략과 구조조정 정책 등을 중·장기적으로 잘 수립했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니셔티브는 상당히 훌륭했다"고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경제도 회복돼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3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세계 4위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쓰러지면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우리 경제는 진원지인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외신들은 "한국경제가 제2의 환란(換亂)을 맞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쏟아냈다. 그로부터 1년 뒤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제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탈출한 나라"라는 찬사를 던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0월 13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가을 글로벌 경제가 추락하면서 한국이 희생자처럼 보였지만 이제 서울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며 "한국은 1분기에만 생산량이 하락했을 뿐 2분기에는 2.6퍼센트 실질 성장해 6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했고 수출 하락 폭도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낮았다"고 보도했다.

12년 전의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위기를 지렛대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연말 무역수지 흑자 4백억 달러 돌파

사상 최고치 기록 '청신호'… 일본 가뿐히 제칠 듯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초로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다. 환율 상승과 품질 개선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한 덕에 연말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고치인 4백억 달러 선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갖춘 기흥공장과 화성공장은 1년 내내 매일 24시간을 풀가동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연구원과 엔지니어, 생산직 등 3만여 명의 직원은 매일 3교대로 8시간씩 일한다. 작업장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이들은 맨얼굴에 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복을 입고 두 차례에 걸쳐 에어샤워를 한다. 근무 도중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 때도 이 과정은 필수다. 반도체는 미세한 먼지에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DS부문 홍보부 배동기 과장은 "직원들 모두 용변을 자주 볼 수 없고, 방진복에 땀이 차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를 지켜온 배경에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혼신을 다하는 열정으로 작업에 임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3년 이후 세계 메모리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7퍼센트씩 성장해왔다. 또한 1984년 이후 지난해까지 42조원의 누적이익을 올려 연평균 이익률이 23퍼센트에 달한다. 올해는 2분기에 2천4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3분기에는 그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1조1천5백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대만 메모리 1위 업체인 난야테크놀러지가 1천억원대의 영업 적자를 내고, 일본의 엘피다가 간신히 적자를 벗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2 현대자동차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2백23만여 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 중 해외에서 판매된 자동차 수는 1백74만여 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국내외에서 2백7만여 대를 팔았고 이 가운데 1백63만여 대는 해외로 수출했다. 전체 판매율은 지난해 대비 7.5퍼센트 오르고, 해외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6.5퍼센트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해외 자동차업체 대다수는 10~40퍼센트의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했다.

현대·기아자동차 홍보지원팀 권용준 차장은 "올해는 정부의 자동차 구입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내수시장에서 많이 팔렸다. 올해도 세계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현대자동차의 해외 판매 실적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판매 실적에서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인 해외업체에 비하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급성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환율 하락과 품질 개선으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 아울러 자동차품질평가기관인 JD파워사가 현대 제네시스를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한층 좋아졌다. 무엇보다 올 들어 북미 대륙에서 대대적으로 펼친 마케팅이 주효했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실직 등의 이유로 차량 유지가 어려울 때 할부 차량을 무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제도와 적극적인 해외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공격적 마케팅 덕에 지난 8월에는 미국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6만 대 판매를 돌파, 역대 최고인 4.8퍼센트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상품의 선전에 힘입어 올해 4백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무역수지 흑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11월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흑자 누계는 3백45억8천3백만 달러로, 연말에는 4백억 달러 선을 무난히 넘을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초로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기록한 2백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면서 사상 최초로 일본(91억 달러)을 추월했다. 일본은 9월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1백1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흑자 규모가 2백억 달러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체 견인차 역할 톡톡

우리나라가 이처럼 무역 강국인 일본보다 앞선 무역수지를 기록한 데는 높은 원·달러 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시장의 다변화,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크게 작용했다. 첨단산업, 선진국 수출 위주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판매시장을 넓혀 선진국 중심으로 닥쳐온 금융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탓에 원료 등 1차 생

동아DB

컨테이너에 담긴 수출용 자동차들이 경기 평택항 부둣가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반도체 등 다양한 수출 품목의 선전으로 사상 최초로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는 경기 용인시 기흥공장.

동아DB

산품 수출 비중(1.9퍼센트)이 미약하지만 조선(10.2퍼센트), 일반기계(8.8퍼센트), 자동차(8.3퍼센트), 반도체(7.8퍼센트) 등 제조업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 품목을 보유해 선진국 수요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일본과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춘 것도 무역수지 흑자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반도체사업 담당 사장은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불황기에도 호황기에 대비하는 과감한 투자, 불황기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품의 차별화와 에너지효율 증진, 고수익 제품 생산을 통한 투자 여력 확보를 꼽았다. 권 사장은 “삼성은 반도체시장의 역성장기에 사업 경쟁력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D램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29퍼센트에서 올해 36퍼센트로 끌어올리고, 낸드 플래시 부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0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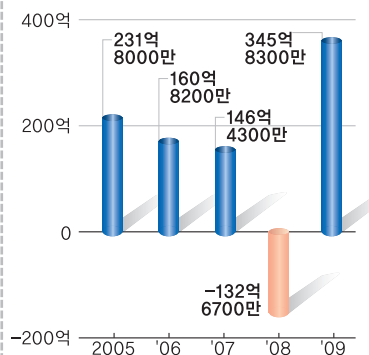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은 탁월했다. 여전히 글로벌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저력은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뛰어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한국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은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서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지식경제부 강명수 수출입과장은 “높은 원·달러 환율과 엔고 현상에 힘입어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내년에는 올해 같은 환율효과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커진 만큼 일본보다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는 2백억 달러 중후반대, 일본은 2백억 달러 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최근 5년간 무역수지 추이

(통관기준, 단위: 달러) *2009년은 1~10월 기준

연도	무역수지
2005	231억 8000만
'06	160억 8200만
'07	146억 4300만
'08	−132억 6700만
'09	345억 8300만

자료 : 지식경제부

외환보유액 2700억 달러 '사상 최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1월 중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은 10월 말까지 2천6백42억 달러로 세계 6위 규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자본 유입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된 데다 달러화 약세와 운용수익 증가로 외환위기 걱정 없는 외환보유국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천6백41억9천만 달러로 9월 말(2천5백42억5천만 달러)보다 99억4천만 달러가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3월 말의 2천6백42억5천만 달러에 6천만 달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2천7백억 달러대에 이르러 사상 최대 외환보유 기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지난 3월부터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은행들이 장기로 조달한 외화로 단기외채를 갚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늘고 있어 단기외채 비율뿐 아니라 유동외채 비율도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외국자본 유입이 늘어나면서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된 적도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원화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해 외환보유액이 2천억 달러로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다시 꾸준히 증가해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의 전월 대비 증가액은 3월 48억 달러, 4월 61억4천만 달러, 5월 1백42억9천만 달러, 6월 49억6천만 달러, 7월 57억8천만 달러, 8월 79억5천만 달러, 9월 87억9천만 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외환보유액의 증가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운용수익 증가,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 등의 강세로 인한 미 달러화 환산액의 증가, 외평기금의 외화유동성 공급자금 만기도래분 회수,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만기도래분 상환 등을 꼽는다. 한국은행 국제기획팀 문한근 차장은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 주식자본 유입으로 유동성 문제

연합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인 2천7백억 달러대에 이를 전망이다.

가 해소된 데다 달러화의 약세로 달러화 환산액이 늘고, 운용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은행의 외화자산 사정도 이미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외화 유동성 비율은 지난 3월 말 1백2.7퍼센트, 6월 말 1백5.2퍼센트로 감독당국의 기준치인 85퍼센트를 크게 웃돌았다. 유동성 비율은 남아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외화자산을 같은 만기의 외화 부채로 나눠 구한다. 이 비율이 하락할수록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부채를 갚기 힘들다는 의미다.

"물가불안 · 금리인상 우려" 韓銀 통화량 안정화에 최선

금융감독원 도보은 외환총괄팀장은 "외화 채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3월 이후 거의 해소됐다. 단기 차입을 줄이고 중 · 장기 차입을 늘리면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의지, 은행의 자발적 노력이 어우러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도 팀장은 이어 "정부는 올해 은행의 외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채무 지급보증을 7억 달러까지 서주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은행은 거의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은 안심해도 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지난 3월부터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은행들이 장기로 조달한 외화로 단기외채를 갚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늘고 있어 단기외채 비율뿐 아니라 유동외채 비율도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외화유입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자칫 물가불안과 금리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시의적절한 외화 매입과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통화량 안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유 외환을 달러화에만 집중하지 않고 유로화,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64퍼센트 정도. 10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2천3백61억2천만 달러(89.4퍼센트), 예치금 2백32억 달러(8.8퍼센트), 특별인출권(SDR) 37억9천만 달러(1.4퍼센트), IMF 포지션 10억 달러(0.4퍼센트), 금 8천만 달러(0.03퍼센트)로 이뤄져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시기	합계(천 달러)	시기	합계(천 달러)
2008. 11	200,505,915	2009. 05	226,766,307
2008. 12	201,223,413	2009. 06	231,734,629
2009. 01	201,741,003	2009. 07	237,509,692
2009. 02	201,534,628	2009. 08	245,458,538
2009. 03	206,340,481	2009. 09	254,247,250
2009. 04	212,478,021	2009. 10	264,187,192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신용회복하고 외환보유액 충분히 쌓아야"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게 국제화된 금융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김경수(56)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해외자본 유입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본자유화의 혜택을 크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고, 경기순응성을 개선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몰아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사한 바는 무엇입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도입한 혁신적 금융상품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른바 그림자 금융시스템의 결합으로 초래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믿음'의 패러다임이 거센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본 유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과도한 해외자본 유입은 자산시장의 붐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 거시경제 불균형을 심화하고 경제가 대내외 충격에 매우 취약해지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해법은.

우선 금융기업 스스로 신용을 회복해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하며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보유외환은 금융 글로벌화에 따라 크게 높아진 단기자본 흐름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완충장치이자 보험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순응성을 개선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제어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경기순응성이 미약하거나 오히려 역행적 성격을 가지는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본자유화의 이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외자본의 구성을 바꾸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 · 장기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민간 부문의 외환거래에 따른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 외화부채와 외화자산 간 차이)의 위험이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가되지 않도록 통화국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태지역에서 통화국제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호주는 순채무국임에도 외채를 자국 통화로 헤징(Hedging ·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확정된 자산으로 편입하는 과정)함으로써 오히려 외환에 대한 채무보다 채권이 더 많습니다.

통화국제화는 단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돈독한 신뢰를 쌓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하며 통화국제화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높은 심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 7년 만에 최고

체감경기도 살아난다

경기에 민감한 남성복 판매가 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 각 백화점 남성복 매출은 10~30퍼센트 늘어났다.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줄곧 감소세였던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올 5월 증가세로 돌아선 후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7퍼센트 늘어났다. 또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117로 조사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11월 3일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남성복 매장에는 평일임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옷을 고르고 있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옷 구매를 줄이고 특히 신사복은 경기지표로 불린다는 점에서 신사복 매장의 활기는 경기가 풀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롯데백화점 본점 마에스트로 신사복 매장 전희성 점장은 "올 가을 매출이 지난해 가을보다 15퍼센트 이상 늘어났다"며 "경기에 따라 가장 먼저 줄고 가장 나중에 회복되는 남성복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의 10월 남성의류 매출은 21.2퍼센트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의 남성의류 매출은 31.1퍼센트 증가했고 특히 신사점장의 경우 올해 가장 좋은 25.2퍼센트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의 남성의류 매출도 10퍼센트 늘어났다.

소비심리 회복은 남성의류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드러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아웃도어 36퍼센트, 스포츠 33.5퍼센트, 식품 29.1퍼센트 등 10월에 전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퍼센트 매출이 늘었다. 이는 올해 집계된 월별 신장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신세계백화점도 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퍼센트나 증가했다. 이 또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신장률이다. 또 현대백화점은 10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1.5퍼센트 신장했다. 현대백화점 이희준 영업기획팀장은 "금융위기 이후 판매가 부진했던 의류, 가전, 가구 등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표 '신사복' 전년 대비 15% 이상 매출 증가

대형마트에서도 경기에 민감한 상품인 가전과 의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10월 25일까지 가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퍼센트, 의류 매출은 30퍼센트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가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6퍼센트, 의류 매출이 10.8퍼센트 늘었고, 롯데마트도 가전과 의류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6퍼센트와 20퍼센트 증가했다.

이처럼 매장에서 보이는 소비심리 회복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56개 도시 2천1백7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0월 27일 발표한 '10월 소

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심리는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월보다 3포인트 오른 117을 나타냈다. 이는 2002년 1분기의 11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웃돌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한국은행 통계조사팀 정귀연 과장은 "최근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수출·내수 부문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도 호전됐다"고 분석했다.

10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동향' 보고서에서도 소비재판매액지수는 8월 대비 1.8퍼센트 증가했고, 지난해 9월 대비로는 6.7퍼센트가 늘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주택 등 내구재 소비는 26.5퍼센트로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자동차 판매는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65.8퍼센트 급증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노후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이 올해 말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기 위해 자동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 호조 등 산업 생산·투자 증가세

가전제품 소비도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9퍼센트 늘어 경제위기 이후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인 가구 판매액이 3퍼센트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07년 1월 이후 32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의복, 신발 및 가방, 취미오락용품 등 준내구재는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2.6퍼센트 늘어 지난해 8월 8.9퍼센트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특히 의복 소비는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9월 1.6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에서 소비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다.

화장품과 식료품으로 대표되는 비내구재는 9월에 전년 동월보다 0.3퍼센트 늘었다. 수치는 미미하지만 지난 2월 8.4퍼센트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진 것이다.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1퍼센트와 9.3퍼센트 늘었다.

음식료품 소비는 의식주 가운데 회복 속도가 가장 더딘 편이다. 지난 2월 마이너스 15.3퍼센트까지 추락한 후 8월에 0.6퍼센트로 올라섰으나 9월에는 마이너스 0.1퍼센트로 주춤한 상태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월에 0.4퍼센트 상승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퍼센트 늘었다. 아파트 등 건축을 의미하는 건축 수주도 12.5퍼센트 증가했다. 9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5만4천여 건으로 8월 5만45건에 비해 8.9퍼센트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2만5천여 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의식주 소비는 회복세를 보고 있다.

통계청 김한식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2분기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도 점차 살아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뿐 아니라 산업생산과 투자도 증가세다. 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0.2퍼센트로 15개월 만에 80퍼센트 수준으로 올라섰다.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전월 대비 2.6퍼센트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퍼센트 증가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또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전월 대비 5.4퍼센트, 전년 동월 대비 11퍼센트 증가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8.8퍼센트, 전년 동월 대비 5.8퍼센트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간의 마이너스 늪에서 탈출하면서 소비와 생산에 이어 플러스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고용도 미약하지만 회복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11월 3일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10월의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6만7천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이는 올해 가장 높았던 1월의 12만8천명에 비해 47.7퍼센트가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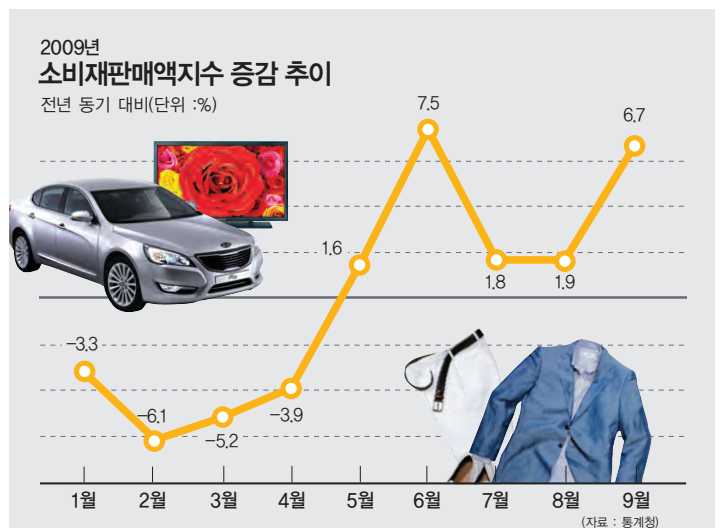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이호승 종합정책과장은 "9월 경제지표가 좋아졌으나 기간이 짧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있어 경기회복을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추세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연말, 연초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

글·이혜련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2009년
소비재판매액지수 증감 추이
전년 동기 대비(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3.3	-6.1	-5.2	-3.9	1.6	7.5	1.8	1.9	6.7

(자료 : 통계청)

동아DB

한국경제는 내년에도 첨단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내세운 기업들의 혁신 경영과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힘입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
내수·수출 모두 맑음

올해 한국경제 회복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감세, 환율 하락과 중국경제 성장에 힘입은 바 크다. 내년 한국경제는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더불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3대 민간경제연구소의 2010년 국내경기 전망을 들었다.

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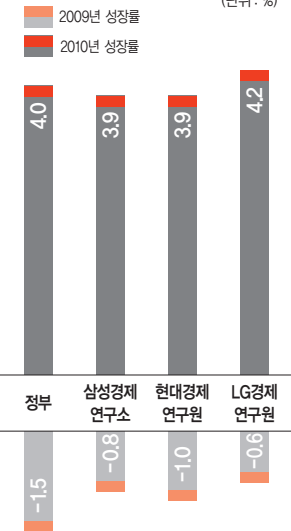
주요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정부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2009년 성장률	-1.5	-0.8	-1.0	-0.6
2010년 성장률	4.0	3.9	3.9	4.2

삼성경제연구소

"내수 3%대 성장 경기회복 견인"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예상되지만 예전 궤도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퍼센트에 가까운 성장을 하더라도 실질 GDP 규모는 잠재 GDP 규모에 38조원 가까이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2백원대 이하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2.9퍼센트 상승하면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기조가 유지되면서 올 연간 경제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파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출도 20퍼센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회복세로 전환한 세계경제는 내년에는 2.3퍼센트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주요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되고, 올해 감소했던 세계교역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축소 노력, 기업실적 개선 미흡에 따른 소비와 투자 회복 지연이 경기회복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화의 약세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 및 투자 활동 억제와 수출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 이외의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교역 축소를 야기하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일정 수준 재정적자 용인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1퍼센트 전후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신흥국은 5퍼센트 성장이 예상되는 등 회복 속도에 있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이가 뚜렷할 전망이다.

내년 한국경제는 3.9퍼센트의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도 3퍼센트대 중반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내수와 수출 모두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 성장과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01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3년 만에 2만 달러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환율은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연평균 달러당 1천1백30원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동아DB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삼성 휴대전화.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예상되지만 올해 장기 성장궤도에서 이탈한 한국경제가 예전 궤도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4퍼센트에 가까운 성장을 하더라도 실질 GDP 규모는 잠재 GDP 규모에 38조원 가까이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 재정균형을 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재정적자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은 주요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리인상은 경기회복 속도와 주요국의 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G

글 · 전영재(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수석연구원)

LG경제연구원

"상승 추세 완만… 4%대 초반 성장률 보일 것"

국내경제의 빨랐던 성장 속도가 올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 둔화되는 조정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리했던 여건이 줄어들면서 국내경기는 점차 세계경기 흐름과 동조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리먼 쇼크'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충격으로 급락했던 우리 경제는 올해 세계적으로 빠른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회복은 우선적으로 세계경제가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분기와 3분기 연율 환산 10퍼센트 이상 고성장함으로써 위기 직전인 2008년 3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1년 만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밖에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한 몇 가지 여건에 기인한 것이다.

우선 위기 이후 급격한 원화 약세가 수출경쟁력 회복에 기여했고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도 GDP 대비 3.7퍼센트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평균 2.0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대중(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효과도 크게 보았다. 향후 국내경제 전망은 세계경기의 향방과 함께 이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여건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엔화 15% 이상 높은 절상… 경쟁력 약화 우려

우선 세계경기는 내년 중 완만한 회복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는 회복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내년 중에도 8퍼센트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뤄놨던 내구재 등에 대한 대기수요가 나타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설비투자의 위축현상도 진정되면서 철강이나 화학 등의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의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다 원화 강세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수출경기 상승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자본유입으로 원화가 대부분의 경쟁국 화폐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엔화에 대해서는 내년 중 평균 15퍼센트 이상의 높은 절상이 예상돼 대일(對日)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양규모 또한 내년은 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 우려와 국가부채 확대 부담으로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 51조원(GDP 대비 5.1퍼센트)에서 내년에는 30조원(GDP 대비 2.7퍼센트) 규모로 줄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근로 등 고용확대 정책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부문 수요를 약화시킬 전망이다.

정부정책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소비회복의 힘은 크지 않아 내년도 내수 경기는 완만한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금리상승으로 적자가계들은 저축 확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주택 규모를 감안할 때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 경기도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중에는 현재의 빠른 경기상승 추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의 빨랐던 성장 속도가 올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 둔화되는 조정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리했던 여건이 줄어들면서 국내경기는 점차 세계경기 흐름과 동조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 경제는 내년 중 4퍼센트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

글 ·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출처 : LG경제연구원)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GDP)	2.2	-3.2	3.1	0.0	4.2
(민간소비)	0.9	-2.6	1.9	-0.3	3.7
(건설투자)	-2.1	2.8	2.8	2.8	3.2
(설비투자)	-2.0	-19.5	-2.2	-11.1	8.1
통관수출 증가율(%)	13.6	-22.8	-5.3	-14.1	15.0
통관수입 증가율(%)	22.0	-34.3	-17.4	-26.0	23.7
경상수지(억 달러)	-64	218	180	398	94
소비자물가상승률(%)	4.7	3.3	2.4	2.8	2.7
실업률(%)	3.2	3.8	3.4	3.6	3.4
취업자수 증가(만명)	0.0	-14.0	-7.3	-10.7	16.4
원·달러 환율(평균)	1,103	1,352	1,208	1,280	1,120
원·엔 환율(평균)	1,077	1,416	1,327	1,372	1,180

현대경제연구원

"GDP 서프라이즈… 확장형 무역수지 흑자 전환"

2010년에도 빠른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출구전략 시행,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유지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경기 중립적 금융정책 시행 등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하반기 들어 한국경제는 'GDP 서프라이즈' 현상을 보이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높은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 덕이 크다. 아직 몇몇 위협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2010년에도 우리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내년 한국경제를 전망하기 전에 우선 우리 경제가 수출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대외 여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2010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도국이 선진국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1.5퍼센트, 일본은 1.7퍼센트, 유럽연합(EU)도 0.3퍼센트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2010년에는 각각 8퍼센트대와 6퍼센트대 중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지역은 2010년에 주요 수출 상품인 석유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DB

세계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위협 요인도

한편 2010년에 미국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약화될 것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절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 들어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의 10월 전망에 따르면 두바이 유가는 평균 88.4달러 후반,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평균 90달러 초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에는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가 안정되면서 국내경기 회복세 또한 2009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수 부문은 수출입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그동안의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기조에서 확장형 무역수지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내수 부문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민간소비 회복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협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본격화 및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무역수지 흑자 추구 전략의 동시 진행, 금리 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신3고 현상 현실화, 성급한 국내 출구전략 실행, 가계부채 부담 증가세 지속, 설비투자 회복 지연에 따르는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2010년에도 빠른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출구전략 시행,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유지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경기 중립적 금융정책 시행 등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시적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기반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성장잠재력뿐 아니라 경기회복 속도 가속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G

글 ·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

“서민정책 효과 내면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

올해 초만 해도 국내외 연구기관 대부분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위기극복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위기 발생 이후인 지난해 말 11조4천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올해 4월 17조2천억원 규모의 세출을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회복이 아직 서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체감경기와 경제지표 간에 차이가 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의 성장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탱해온 것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물가는 안정돼 있지만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진 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경제회복과 함께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쟁은 보장하되,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방만한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이 완성된다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주력할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와 규제완화가 바로 그러한 차원의 정책들입니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투자가치가 높고 투자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경택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경제회복과 함께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늘려왔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6퍼센트로 수치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안전한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백재현 민주당 의원

"내수산업 육성해 고용 창출에 힘써야"

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에 대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착시현상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내수산업을 육성해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각종 수치와 해외언론의 평가에 대해 "착시현상일 수 있다"며 냉정하게 평가했다. 지난해 다른 나라보다 더 흔들렸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나치게 흔들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5위권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도 국가부도설이 공공연히 유포됐을 정도로 지난해 말 한국경제는 실제 기초경제여건(펀더멘털)보다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다 보니 회복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경택 기자

수치와 통계에 허상이 있다는 말이군요.

정부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시지표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단적으로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입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아직까지도 불황형 흑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대규모 추경으로 인해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할지 모르는 수준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다는 평가 자체도 주관적인 것으로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빠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고용률이나 실질임금, 가계대출 같은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 말에 편성된 예산안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4퍼센트로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야당과 전문가들이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다가 올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마이너스 2퍼센트로 수정됐습니다. 뒤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중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세로 인한 세수입 감소 규모가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에 3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12년경에는 국가채무가 5백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최소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하를 유보하고, 시대착오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해야 합니다.

>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주력할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와 사회양극화, 저출산입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때문에 잠시 가려져 있지만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부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제일주의'를 버려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치유 뮤지컬에 장애인 초청한 배우 김선경

"시원하게 울고 가세요"

10월 31일 막을 내린 뮤지컬 '당신도 울고 있나요?'에서 김선경 씨는 기획, 연출, 극본에다 극중 1인 8역까지 맡아 노 개런티로 열연했다. '치유 뮤지컬'답게 그는 따뜻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장애인들을 무료 초청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공연 기부를 할 계획이다.

"당신의 상처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내 상처를 당신이 안아주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손가락질할 권한도, 자격도 없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이며 행복할 권리를 타고난 존재입니다. 전 그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공연된 뮤지컬 '당신도 울고 있나요?'에서 김선경(41) 씨가 읊조리는 대사다. 자신이 기획, 연출하고 대본도 직접 쓴 이 뮤지컬에서 그는 1인 8역으로 출연해 사랑의 아픈 사연을 옴니버스식으로 연기했다. '치유 뮤지컬'이라는 부제를 붙인 건 이금희 아나운서의 조언 덕분이다. "치유란 다른 게 없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고 웃고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해 공연을 올리기 전 이런 부제를 붙인 것이다.

김 씨는 뮤지컬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당신도 울고 있나요?'의 DJ 선경 역을 맡았다. 뮤지컬 1부에서는 청취자가 보내온 7편의 사연을 읽으면서 20대부터 70대까지 사연의 주인공들을 연기했다.

실연당한 여자, 사기꾼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여자, 매 맞고 사는 여자,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할머니 등을 연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애절하기도 하고, 카랑카랑하기도 하다. 남자배우 장준휘 씨가 감초로 등장하지만 김 씨가 거의 혼자 극을 이끌어가다시피 한다. 사연 중간에 '배반의 장미' '화장을 고치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고, 자신이 초청한 가수 이문세, 신성우, 배우 정경순, 추상미, 이다희 씨 등 유명 연예인들과 토크쇼를 곁들이기도 했다.

청각장애인 배려 뮤지컬 최초 수화 통역원 배치

2부는 아픈 사연이 있는 관객을 무대로 불러 위로하는 시간이다. 공연마다 관객에게서 의외로 솔직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이 쏟아져 나온다. 김 씨는 이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분들, 정말 시원하게 울고 가세요."

김 씨는 기획·연출료는 물론 출연료도 전혀 받지 않았다. 또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공연에는 장애인을 초청해 무료로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뮤지컬로는 최초로 수화 통역원을 두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보면서 공연을 관람하고, 시각장애인은 들으면서 상상을 하죠. 장애인도 행복과 슬픔은 마음으로 똑같이 느끼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나누지 않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던 김 씨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주변 사람들에게 '타인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조언도 서슴지 않다 보니 나눔과 기부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직원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다. 하지만 자신이 평소에 하는 봉사활동이나 공연 기부에 대해서는 '그저 평범한 일'이라고 말을 아낀다.

1988년에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 씨는 뮤지컬 배우로 더 유명해졌다. 1991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 역을 필두로 '갬블러' '라이프' '루나틱' '맘마미아' '진짜 진짜 좋아해' '클레오파트라' 등 수많은 뮤지컬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인기상을 3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MBC 드라마에 출연, '태왕사신기'의 연부인과 '크크섬의 비밀'의 김 부장을 연기해 시청자들과도 친숙하다.

"제 인생의 반을 살았다면, 반이 더 남았잖아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문해보니 답은 '연기'였어요. 제가 가진 재능이 연기인 만큼 연기로 계속 봉사해야죠."

그에게 기부란 곧 '같이 손잡고 안아주는 나눔'이다. 올해 9월과 10월에 '당신도 울고 있나요?'로 뮤지컬을 선보였듯이 앞으로도 매년 같은 시기에 치유와 나눔을 위한 '노 개런티' 공연을 할 계획이다.

"돈, 명예, 지위 같은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용기와 신념이 필요해요. 손을 펼쳐서 자꾸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쥐려고만 하니까 힘들 밖에요. 욕심을 조금만 덜 내면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김 씨는 앞으로 치유극 대본을 쓸 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할 작정이다. KBS '추적 60분'이나 SBS '긴급출동 SOS 24'에 소개된 사건들을 바탕으로 대본을 쓰겠다는 것이다. 올해의 소재가 사랑이었다면, 내년에는 사기와 폭력이다. 다소 험악한 소재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고통 받았

던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다.

"사회문제 고발이 고발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동시에 개선이 돼야 하고, 포용과 평화의 메시지도 있어야 해요. 예술이 그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내년 주제는 사기 · 폭력… 예술로 상처 치유하고파"

관건은 재정문제다. 이번 공연을 할 때도 역시 재정문제가 큰 난관이었다. 직접 기업체나 단체로 공연을 지원할 만한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 사람들은 '배우가 이런 일까지 하느냐?'며 놀라기도 했고, 색안경을 쓰고 보기도 했다.

"배우도 무대에서 내려오면 일반인과 똑같아요. 공연을 지원해달라고 찾아가면 '드라마나 다른 데 출연해서 돈 벌면 되지 왜 그러느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욕먹는 건 상관없어요. 저랑 함께하는 배우들이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관객에게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점에서도 지원이 아쉬워요."

'당신도 울고 있나요?'를 공연하며 두 달 동안 번 돈이 한 푼도 없지만, 그동안에도 작품 섭외는 쇄도했다. 머지않아 뮤지컬 '더 씽 어바웃 맨' '진짜 진짜 좋아해' '건 메탈 블루스'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돈이 아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가슴을 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죠. 개런티나 생활비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공연 기부를 계속하겠습니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장애인도 행복과 슬픔을 똑같이 느끼잖아요." 김선경 씨는 자신이 기획, 연출, 출연한 뮤지컬 '당신도 울고 있나요?'에 장애인들을 무료로 초청해 치유의 메시지를 나눴다.

연합

● 이지선(31) 씨는 이화여대 4학년 때인 2000년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의 55퍼센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30여 차례의 힘든 수술을 이겨낸 이 씨는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마라톤 완주한 이지선 씨

"이제 다 왔어… 7시간 22분… '희망'으로 골인했어요"

하프 지점부터 "거의 다 왔어요!"라는 응원은 마치 예전 화상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파하는 나에게 '이제 거의 다 끝났어'라며 용기를 주던 말처럼 들렸다.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한발 한발 옮기다 보니 어느새 결승점이 보였다. 출발한 지 7시간 22분 만이었다.

"지선 씨, 한 10킬로미터만 걷고 지하철 타고 와요." 2009년 11월 1일(현지 시간) 뉴욕시민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릴 때 푸르메재단 백경학 이사가 하신 말씀이었다. 8시간 걸어서라도 완주하겠다고 결연하게 의지를 다졌지만, 바로 전날 마라톤 고수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차로 코스를 돌아보는 동안 점점 걱정이 커졌다. 그래서 대회 날 아침이 되자 '그래, 정 힘들면 지하철 타지 뭐' 하고 주머니에 지하철 카드를 넣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린 당일. 새벽부터 모여든 세계 각국의 마라톤 마니아 4만여 명이 운집해 출발 전 시간을 즐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경기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한 그룹씩 출발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뉴욕시민마라톤은 맨해튼 남쪽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시작해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할렘을 지나 센트럴파크에서 끝난다.

이번에 나처럼 푸르메재단의 재활병원 설립기금 모금 홍보를 위해 뛰는 장애인 마라토너 네 분, 도우미 두 분과 함께 브루클린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에 반도 못미쳐 힘에 부쳤다. 다들 각자 자기 페이스대로 가기로 하고 먼저 그분들을 보냈다.

푸르메재단 재활병원 설립기금 모금 홍보 위해 참가

그중 한 명인,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김황태 씨(나와 같은 시기에 사고를 당해 2개월 동안 같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분)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보다 힘들겠어? 끝까지 파이팅!"을 외치며 가셨다. 걷고 뛰기를 반복하면서 그

말을 계속 되뇌었다.

브루클린에 들어서니 양 길가에 늘어선 시민들의 응원과 밴드의 연주가 힘을 북돋워줬다. 초반엔 세 블록은 걷고, 세 블록은 가볍게 뛰면서 15킬로미터까지 갔다. 그러고 나니 왠지 하프 마라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1킬로미터 하프 지점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 곧 퀸스버러 다리를 넘으면 맨해튼인데, 맨해튼까지는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발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무릎으로, 또 고관절로 올라오면서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다. 맨해튼에 들어오면서부터 절뚝거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 눈물이 왈칵 나오기도 했다.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속도는 현저히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추위까지 느껴졌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다. 이 무모한 도전을 끝낼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그런데 잠깐씩 주저앉는 나에게 사람들은 'Go Korea!(한국 파이팅)'를 외쳤고, 지나가던 마라토너들은 정말 괜찮냐고 물으며 바나나를 나눠주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그게 큰 힘이 되어 다시 몸을 일으켰다.

센트럴파크 입구 "이지선 파이팅" 격려에 기운 얻어

그렇게 1킬로미터만 더 가보자 한 것이 마지막 지역인 브롱스를 앞두고 있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걸었다. 하프 포인트부터 들어온 'Almost there!(거의 다 왔어요)'라는 응원은 마치 화상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파하는 나에게 '이제 거의 다 끝났어'라며 용기를 주던 말처럼 들렸다.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한 발짝씩 옮기다 보니 어느덧 센트럴파크가 보였다. 7킬로미터만 더 걸으면 결승 지점이었다.

그때부터는 완주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더욱 힘이 났다. 그렇게 걷다 보니 센트럴파크 어귀에서 어느 한국인이 '이지선 파이팅!'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한 시간 반 전에 너무 힘들게 걷는 나를 보고 응원하기 위해 센트럴파크까지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포기했더라면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망부석처럼 기다려준 그분의 마음이 고마워서 힘을 내어 결승점으로 향했다.

해는 지고 어둑어둑해졌지만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니 눈물이 솟구쳤다. 기다리고 계시던 백경학 이사가 태극기를 주셨다. 나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결승점에 골인했다. 7시간 22분에 걸친 나 자신과의 싸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고 한 것이 끝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한다. 난생 처음 마라톤을 하면서 그 말에 공감했다.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오고,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오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먼 목표가 아닌, 손에 잡힐 것 같은 목표를 계속 앞에 세우고, 열심히 가다 보면 목표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 푸르메재단이 꿈꾸는 재활전문병원은 오늘 아침의 나에게 42.195킬로미터처럼 허무맹랑한 꿈일지 모른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두세 달을 기다려야 할 만큼 병상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문 재활병원 건립은 무모한 도전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렇게 걷고 달려온 길처럼,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다면 꿈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오늘 내 완주가 부디 푸르메재단의 꿈에 힘을 실어주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현실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전하기를 바란다. G

글 · 이지선(미국 컬럼비아대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양종구 기자의 마라톤 동행기

"결승점의 박수갈채… 감동의 완주"

푸르메재단

이지선 씨와 함께 레이스를 펼친 동아일보 양종구 기자(맨 왼쪽).

이지선 씨는 이날 마라톤 코스를 출발한 지 1킬로미터도 안 돼 "힘들어 못 달리겠다"며 걷기 시작했다. 피부가 손상되면 피부 호흡에 문제가 있어 조금만 달려도 숨이 가쁘다. 올여름 푸르메재단에서 출전 권유를 받은 뒤 일주일에 세 번씩 1시간 반가량 빠르게 걷기 연습을 했지만 달리기에는 무리였다.

이 씨는 달리기보다 빠른 걸음을 택했다. 10킬로미터를 넘어 20킬로미터를 향해 가면서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얼굴 표정은 밝았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힘내라"고 하면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다. 30킬로미터에 이르렀을 때 시간이 너무 늦어 코스가 폐쇄됐지만, 그는 한발 한발 결승점을 향해 걸었다. 출발한 지 7시간 22분 만에 센트럴파크 결승점에 도착하자 3백여 명의 시민이 박수와 갈채로 축하해줬다.

양팔을 사고로 잃은 김황태(31) 씨, 시각장애인 신현성(48) 씨, 청각장애인 이수완(40) 씨,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김용기(34) 씨도 모두 완주했다. 이지선 씨와 완주의 기쁨을 나눈 이들은 모두 푸르메재단의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 모금 홍보를 위해 마라톤에 참가했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푸르메재단은 경기 화성시에서 6백억원 상당의 땅을 기증받았으며, 3백50억원의 병원 건립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푸르메재단 www.prume.org

조영철 기자

배우 안성기 씨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 홍보대사와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북극의 눈물〉 내레이션을 맡았다.

환경 지킴이로 나선 국민배우 안성기

"아프리카 다녀온 뒤 물을 아낍니다"

'국민배우' 안성기의 진짜 매력은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10년 넘게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그가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의 홍보대사,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북극의 눈물〉의 내레이션을 맡는 등 '환경 지킴이'로 나섰다.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환경 지킴이로 나섰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로 빚어진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의 홍보대사와 환경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로는 보기 드물게 지난 10월 극장에서 상영한 〈북극의 눈물〉의 내레이션을 맡는 등 지구 환경을 지키는 전시와 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숲속의 나무, 공기, 맑은 물 등 자연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는 일상입니다.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평화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를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요."

9월 28일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북극의 눈물〉 시사회장을 찾은 안 씨는 환경 관련 단체의 홍보대사 등 환경 지킴이로 적극 활동하는 이유를 '일상을 지키는 작은 활동'이라고 말했다. 〈북극의 눈물〉 시사회장을 찾은 날 그는 부

산국제영화제 준비를 위해 부산에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행사에 참석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었다. 안 씨는 1993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유니세프 친선대사 자격으로 소말리아 난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 어린아이들이 4, 5시간을 걸어가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보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0년 전 몽골을 찾았을 때도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몽골의 한 어린이가 물을 아끼기 위해 입에 물을 머금고는 손에 조금 뱉어내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물 부족은 단지 그 나라 기후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온난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 어린이들이 받는 고통엔 우리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이상기후로 수십 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이곳 어린이들은 흙탕물을 그냥 마시는 일이 예사다. 흙탕물조차 구하기 어려워 어린이들이 물동이를 지고 3, 4시간씩 걸어가서 길어와야 한다. 불결한 물 때문에 어린이들이 전염병에 걸려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울랫시네마

지구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극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 한 장면

"저희 집에서는 수도를 '쏴아'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전구도 모두 절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고생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방문 후 지구온난화에 관심"

또한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남태평양의 투발루, 신혼여행지로 인기 높은 몰디브 등 아름다운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 난민'도 속출하고 있다. 나라가 물에 잠겨 어디론가 피신해야 하는데, 이웃 나라에서 외면하니 갈 곳이 없어 떠돌게 되는 것이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대부분 내뿜고 있지만 그 피해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등 힘없는 나라에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 씨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 〈북극의 눈물〉의 내레이션을 기꺼이 맡은 것도, 이상기후 문제를 다룬 '기후변화 체험전' 홍보대사를 자처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프리카를 다녀온 뒤부터는 의식적으로 물을 아낍니다. 저희 집에서는 수도를 '쏴아'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전구도 모두 절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고생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한 후 안 씨는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2003년 환경재단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8월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STOP CO_2' 캠페인의 라디오 공익광고에 출연했다. 이때 받은 출연료는 전액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특히 2007년엔 '지구를 사랑하는 10인'으로 선정돼 개개인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행동지침 등을 발표했다. 김지하 시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지구를 사랑하는 10인'이 발표한 지구온난화 방지 수칙은 △가까운 거리는 걷고 3킬로미터 이내 거리는 자전거 이용하기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운전할 경우 정차 중엔 엔진 끄기 △에너지 절약하기 △재활용되는 상품 먼저 구입하기 △육식을 줄이고 채식 많이 하기 △환경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 나누기 등이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지구환경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기꺼이 고마운 마음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안 씨는 1957년, 여섯 살에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해 올해로 53년째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함께 데뷔한 동기가 김지미 씨일 정도니 배우 경력이 까마득하다.

안 씨는 말 많다는 연예계에서 반백 년을 넘게 활약했지만 스캔들 하나 없는, 말 그대로 국민배우다. 그가 국민배우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에는 완벽한 자기관리, 오직 영화 한길만 걸어온 올곧은 장인정신 등으로만 설명하기 힘든 '색다른 카리스마'가 존재한다. 그 카리스마의 정체는 어린이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 환경보호에 대한 열정 등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에 헌신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이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청와대 대통령실-강원 홍천 와야마을 자매결연

“따뜻한 인연, 소중히 만들어가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지만 도시와 농촌은 멀리 떨어진 ‘거리’ 때문에 인연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에 청와대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강원 홍천의 와야마을과 인연을 맺었다.
도농 상생을 위한 대통령실의 ‘농촌사랑 자매결연’ 행사를 소개한다.

문화일보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해 직원들은 와야마을을 방문해 농촌 봉사활동을 하며 마을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인연, 오래도록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강원 홍천군 내촌면 와야1리 마을회관은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을 사람들을 비롯해 홍천군 지역인사 80여 명과 이날의 손님인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청와대 대통령실과 와야마을이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와야마을과 인연을 맺기 위해 서울에서 차로 2시간여를 달려 오전 11시께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했다.

이광규(46) 와야1리 영농회장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 기분이 좋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좋은 인연이 계속됐으면 한다”며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에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은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식구들은 농촌을 고향이자 국가 전체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의 인연을 통해 앞으로 더 농촌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단한 자매 결연식 행사가 끝나자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은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 이날 봉사활동의 미션은 단호박 지지대를 철거하는 일이었다.

이철규(39) 내촌농협 팀장은 “내년 단호박 농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지지대가 2, 3킬로그램이나 나가는 무거운 철근으로 돼 있다. 어른 두 명이서 2인 1조로 해도 힘든 일이라 잘못해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팀장의 우려와 달리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은 마을 사람들의 설명과 도움으로 30여분 만에 5백여 평에 달하는 밭에 있던 지지대를 순식간에 철거했다.

이 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 일을 도와준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덕분에 지지대가 철거된 밭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아주 맛있는 호박들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덕호 청와대 농수산식품부 비서관실 행정관은 “평소 하지 않던 일이라 마을에 도움이 될까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해보니 즐거웠다”고 봉사활동 소감을 밝혔다.

힘든 일을 끝낸 후 막걸리로 목을 축이면서 짧은 일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던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은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다. 참기름으로 고소하게 무친 산나물, 직접 만든 수제 도토리묵, 달콤한 단호박 튀김 등 도시에서는 맛보기 힘든 ‘시골 밥상’을 차려준 것이다.

“청와대 식구들은 농촌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점심 메뉴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사람들이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을 위해 특별히 강에서 잡은 모래무지 매운탕이었다.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은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민물고기인 모래무지 매운탕을 먹으면서 “얼큰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며 마을 사람들의 음식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청와대 대통령실과 와야마을의 특별한 만남에 이날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였다. 특히 지난 9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또다시 청와대 사람들이 찾아주었기에 “인연이다” “마을이 잘될 징조다”며 다들 기뻐했다.

김덕호 행정관은 “짧은 일정으로 진행돼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수련회, 세미나 등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되도록 와야마을을 활용하고, 매년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찾아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촌스럽다는 정부 광고 '村스러워'로 상 받았어요

농림수산식품부 캠페인 '2009 대한민국 광고대상' 우수상 수상

이젠 정부 광고가 딱딱하다는 편견은 버려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촌스럽다'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 민간단체인 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

"촌스러우면 어떤가요. 그 촌스러움이 여유와 사랑, 희망을 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촌스럽다'는 말이 주는 부정적 의미를 줄이고 농어업·농어촌의 참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촌(村)스러워 고마워요'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 슬로건인 '촌(村)스러워 고마워요'는 '촌(村)'이 소외되고 낙후된 장소가 아니라 녹색성장의 가능성이 높고 도시민에게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인터넷 사이트 '촌스토리(chonstory.com)'를 통해 진행됐는데 다양한 이벤트를 벌여 국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1차 캠페인에서는 농어업·농어촌의 광고 세 편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만드는 가장 촌(村)스러운 이야기'와 누리꾼(네티즌)이 직접 광고를 만드는 '나도 촌(村)스러운 CF 주인공' 등이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반응을 얻은 것은 '촌(村)스럽다, 국어사전을 다시 씁시다'라는 누리꾼 청원 캠페인이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에 이 캠페인을 진행해 총 1천6백42명의 누리꾼 참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우리가 모두 촌스럽길 바라며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촌스럽다는 말의 이미지가 바뀌길 바랍니다" 등 한 줄 서명 행사 댓글에도 따스한 글귀를 담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촌(村)스러워 고마워요' 캠페인의 성과가 빛을 발해 큰 상을 받게 됐다. 바로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2009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인터넷 부문 우수상을 받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 '촌스러워 고마워요' 캠페인은 '2009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인터넷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2차 캠페인을 시작했다. 손수제작물(UCC)·광고 공모전,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국내 여행,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스킨 받기 등 아이디어 넘치는 이벤트들을 구성해 캠페인의 활기를 더했다. 이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참여한 캠페인은 쇼핑몰 인터파크와 연계한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티셔츠'. 캠페인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단돈 1백원에 판매해 9월 한 달간 3천여 장의 티셔츠가 팔려나갔다.

티셔츠를 구매한 누리꾼들은 "저렴한 가격에 촌스럽기는커녕 귀엽고 예쁜 티셔츠를 갖게 돼 기분 좋다"며 "더 많이 구매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인터넷 부문 정부기관 유일 수상… 캠페인 다시 재개 예정

농림수산식품부의 '촌(村)스러워 고마워요' 캠페인은 10월 말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가 빛을 발해 큰 상을 받게 됐다. 바로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2009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인터넷 부문 우수상을 받게 된 것이다.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로 꾸민 덕분에 일반 기업과 경쟁하는 인터넷 부문에서 정부 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수상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 박용열 사무관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어업·농어촌이 제공하는 참된 가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만간 '촌(村)스러워 고마워요' 캠페인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야간은행, 주말은행 늘어난다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춰 영업하는 은행이 늘고 있다. 일부 대형 할인점 내 지점은 3백65일 영업한다. 직장인을 위해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 문을 여는 저축은행도 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은행이 늘어나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후 4시면 문이 굳게 닫히고 휴일에는 열지 않는 은행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누구나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저녁이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은행이 늘고 있다. 평일 낮에 은행 갈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의 병점, 강동, 중계점에 있는 하나은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이들 지점은 추석과 설 당일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또 일반 은행과 달리 출입문이 따로 없고 쇼핑카트를 끌고 들어갈 수 있어 꼭 은행에 볼일이 없어도 쇼핑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하나은행 마케팅기획부 정조영 차장은 "은행은 고객유치 효과, 홈플러스는 매장 매출액 증가, 고객은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며 "고객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야간 · 주말 영업 은행

은행	지점	연장 영업	전화
하나은행	강동홈플러스지점 외 2곳	매일 오전 11시~오후 8시	1599-1111
외환은행	퇴계로지점 외 10곳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1544-3000
신한은행	방산시장지점 외 1곳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1599-8000
기업은행	안산외환송금센터	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휴일 오전 9시~오후 4시	031-508-3032
우리은행	혜화동지점 외 1곳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080-365-5000
국민은행	오장동지점	일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02-2268-3103
농협	향남지점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031-8059-2100
토마토저축은행	전 지점	수요일 오후 9시까지	1544-2200
W저축은행	본점	수요일 밤 9시까지 /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1644-3300
스카이저축은행	본점	평일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정오까지	1588-4111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강남점, 명동점, 삼성본점	수요일 오후 9시까지	1566-2210, 2210
	분당점, 대치점, 일산점	화요일 오후 7시까지	1566-2230
에이스저축은행	본점	수요일 오후 5시~8시30분까지	032-421-7000

야간 영업에는 저축은행이 적극 나서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전 지점에서 매주 수요일 문 닫는 시간을 오후 4시에서 밤 9시로 늦췄다. 토마토저축은행 이호준 홍보팀장은 "수요일은 평일에 비해 방문 고객 수가 두 배를 넘는다"고 밝혔다.

W저축은행은 매주 수요일은 밤 9시까지 문을 연다. 또 토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스카이저축은행도 평일에는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낮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야간·주말에 은행업무 처리" 직장인들 반응 좋아

이 밖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분당점, 대치점은 화요일 오후 7시까지, 강남점, 명동점, 삼성본점은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연다. 에이스저축은행도 본점에 한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서 8시30분까지 연장 영업을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영업하는 은행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에 문을 여는 은행이 필요하다. 은행들도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낼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일요일에 문을 여는 은행은 외환 송금과 환전 업무만 한다.

외환은행은 서울의 대림역지점, 안산 원곡동외환송금센터 출장소, 인천시 남동공단지점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11개 지점을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다.

신한은행도 방산시장지점과 안산 원곡동외환센터에 통역 전문요원을 두고 일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안산외환송금센터는 설과 추석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안에 있어 방문자가 주말에는 1천명이 넘는다. 또 우리은행 혜화동지점과 광희동지점도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하나은행 구로동지점과 국민은행 오장동지점, 농협 화성 향남지점도 일요일에 문을 연다. G

글 · 이혜련 기자

외국인 근로자 병원 김해성 목사

1천원, 2천원 모아 이룬 "가리봉동의 기적"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으로 떠났던 한국인들처럼 '코리안 드림'을 향해 한국으로 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그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는 김해성 목사가 있다.

김해성 목사(맨 오른쪽)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병원을 지어 하루 평균 2백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건강과 따뜻한 한국의 이미지를 되찾아주고 있다.

국내외국인 체류자가 1백만명을 넘어섰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길거리에서 쉽게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 중국 동포,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꿈과 현실은 달랐다. 돈이 없어서 혹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었고, 회사나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찌 할 바를 몰라 그저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김해성(48) 목사는 이들의 아픔을 감싸안아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친구'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외국인 근로자, 중국 동포 등을 위한 무료 상담소와 진료소, 쉼터, 교육센터 등을 세워 이들이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중에서도 김 목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말 필요한 곳이라며 소개한 곳은 '외국인노동자병원'이다. 그는 병원을 차리기 전 10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장례를 1천5백여 차례 치렀다.

"공사장에서 발에 못이 찔려 패혈증으로 숨진 중국 동포, 급성 맹장염인 것을 모르고 참다가 복막염으로 번져 숨진 외국인 근로자 등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제때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병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의 특징은 간단한 진료부터 수술, 입원, 통원치료까지 모두 무료라는 점이다. 개원 후 5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19만명이 찾아와 몸과 마음을 치유받았다.

"처음 무료 병원을 세운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겠냐면서요. 부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1천원, 2천원씩 내는 소액 기부자에서부터 거액의 기업 후원자까지 나타나 '가리봉동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죠."

평소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김 목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 동포를 위한 무료 상담을 하다가 1994년 경기 성남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과 '중국 동포의 집'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나섰다. 2000년 노동부 산하 외국인 근로자 봉사단체 '지구촌 사랑 나눔'을 결성했고, 2004년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노동부 산하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안산, 성남 등 각 지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중앙센터 격인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방송국 MNTV, 한국어·컴퓨터·태권도교육 프로그램, 모국어 상담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손님… 외교 첫걸음으로 여겨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모두 손님입니다. 생김새나 피부 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조금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선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을 소중하고 고마운 나라로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의 첫걸음인 거죠."

김 목사는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중국 동포, 결혼이민자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은 소외받고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지만 꾸준한 교육과 사랑을 통해 다중언어 전문가로, 더 나아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되길 소망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지구촌사랑나눔 Tel 02-863-6622 g4w.net
외국인노동자병원 Tel 02-863-9966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Tel 02-6900-8000 migrantok.org

검찰청 '인터넷 신문' 읽어 보셨나요?

새치기 좀 했어요, 그게 어때서요? "경범죄 위반 벌금 5만원입니다"

연인들이 서울 남산의 철조망에 자물쇠를 매달고 영원한 사랑을 위해 열쇠를 버리면? 폐기물법 위반이다. 일상 속 법률 이야기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주고, 검찰의 세계를 속 시원히 알려주는 검찰청 전자신문과 블로그는 검찰이 국민과 소통하는 양 날개다.

'북한에서 야동 보다 걸리면?' '어느 유부남의 진술과 진실' '드라마 <찬란한 유산> 그 진정한 의미' '하이힐도 흉기라는데' 제목만 보고 클릭했다가 낭패를 보고 마는 '낚시' 글 같다고? 하지만 클릭한 누리꾼(네티즌)들은 '역시!'라는 감탄사를 터뜨린다. 흥미로운 제목 못지않게 알찬 법률지식을 담은 검찰청 블로그 '검토리가 본 검찰 이야기'(이하 검토리)에 실린 인기 포스트이기 때문이다.

조영철 기자

대검찰청에서 인터넷신문 <뉴스-프로스>와 '검토리' 블로그를 만드는 편집진과 필자들.

"'검토리'는 검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외톨이처럼 사건과 씨름하고, 외롭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검찰이죠. 검찰과 도토리의 합성어로 귀엽게 봐주셔도 좋습니다."

검토리 담당인 대검찰청 박채원(35) 수사관의 말이다. 검토리는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워 블로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설된 네이버 검토리 블로그에는 하루 9천~1만명, 지난 3월 개설된 다음 검토리 블로그에는 하루 3천~4천명의 누리꾼이 방문한다.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란 부제를 달고 출범한 검토리의 인기 비결은 국민들에게 권위적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검찰의 세계를 속 시원히 공개하고,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것이다. '검찰 life' '검찰 에세이' '생생한 사건 story' 등이 검찰 세계를 공개하는 메뉴라면 '판례, 법률상식'은 일상 속 법률지식을 담는 메뉴다.

여기에 대검찰청 온라인 홍보팀원들의 능수능란한 제목 뽑기가 실력을 발휘하면 블로그 글 랭킹이 껑충 뛰어오르게 마련이다. 올 들어 '조선시대 금주령' '어느 유부남의 진술과 진실' '화장품, 쓸수록 노화를 부른다?' '지나친 노출은 화를 부르는 법!-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이 다음 블로그 글 랭킹 1위에 올랐다.

권위적으로 느껴지던 검찰 세계 속속들이 보여줘

지난 6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와 로라 링이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보도를 보고, 서울동부지검의 김기수 수사관이 북한의 형법을 재미있게 해설한 '북한에서 야동 보다 걸리면?'은 <조선일보> <파이낸셜 뉴스> 등에 소개되는 등 미디어의 조명을 받았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독자층도 늘고 있다. 담임교사의 권유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성숙한 기부문화를 꿈꾼다' 등의 포스팅을 읽는 숙제를 하러 오기 때문이다.

검토리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4층 대변인실. 이곳에서 온라인 홍보팀을 총괄하는 양인철(38) 연구관을 비롯해 이용철(40) 사무관, 박채원 수사관, 김민희(26) 씨 외에도 그때그때 수사관과 사무관들이 업무를 지원한다. 기획, 필자 발굴,

원고 청탁, 편집, 댓글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웹과 블로그,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은 여느 웹진 편집실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검찰이 블로그를 개설해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2007년 3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전자신문 〈뉴스-프로스(News-Pros)〉의 성공 덕분이다. 이용철 사무관은 〈검찰가족〉이라는 인쇄 사보를 대신해 발간하기 시작한 전자신문이 좋은 반응을 얻자 블로그 개설로 소통의 통로를 더욱 넓혔다고 말했다.

"〈뉴스-프로스〉는 창간 때부터 검찰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다양하게 보여주자는 기획 의도를 충실하게 담기 위해 그와 관련된 메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검찰인의 생각'(설문조사), '바꿔 바꿔'(검찰 혁신 사례), '법조골목 탐험'과 같은 메뉴가 그 예입니다."

지난해부터 〈뉴스-프로스〉는 검찰의 역할을 알리고 다양한 법률상식을 제공하는 정보처의 기능을 추가했다. '미디어 속 법률 이야기' '사건과 사람들' '해외 리포트' 등이 추가된 메뉴들이다.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뉴스-프로스〉에서 다룬 기사는 4백여 건. 구독자는 창간 초기 2만여 명이었다가 지금은 3배가 넘는 6만5천여 명으로 훌쩍 늘었다.

수사 과정 뒷이야기·과학수사 이야기 등 인기 만점

월간 발행 형식이 주간으로 바뀌었으며, 주간 e메일 레터도 구독자들에게 꾸준히 발송한다. 독자층은 전국 63개 검찰청에 종사하는 9천여 명과 그 주변인들이었으나 현재는 일반인이 훨씬 많다.

"〈뉴스-프로스〉에는 화제가 된 글들이 많습니다. 김진숙 검사(현 사법연수원 교수)가 홍보관실에 근무하면서 약 1년간 연재한 '미디어 속 법률 이야기'는 매회 5천 건 이상 조회가 됐어요. 인기 드라마나 영화 속 잘못된 법률상식을 짚어주는 코너로 매회 미디어에서 인용할 정도였으니까요."

역대 최고 인기 글은 2008년 7월에 실린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추억(?)'. 당시 사건 담당이던 이건석 검사(현 변호사)가 쓴 글로 범인 검거에서 수사, 사형 확정까지의 뒷이야기를 다뤘다. 이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켜본 유영철의 면모와 함께, '비 오는 날 유영철의 범행 재연 장면을 지켜보고 있자니 괴기스러운 공포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는 등 솔직한 고백을 털어놓았다.

이 밖에도 열독률이 높은 장기 연재물은 '검찰 CSI'다.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진상을 과학수사(유전자 감식, 문서 감정, 마약 감식, 심리 분석)로 밝히는 코너로, 해당 전문가들이 필자로 등장해 인기 순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검찰 CSI'에 실린 글은 'DNA로 기소된 일본 무기수, DNA로 풀려나다'다. 이승환(48) 대검 유전자감식실장이 기고한 이 글은 살인 누명을 쓰고 18년째 복역 중이던 일본인 무기수가 지난 6월 석방된 사건을 다룬 것. 이 무기수는 1990년 5월 DNA 감정 결과 살인범으로 지목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추적 끝에 DNA 재감정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이 사용한 'MCT118'이라는 DNA 감정법은 일본인 내에서 1천명당 1.2명의 확률로 동일한 DNA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확률에 걸려들었던 것이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0여 가지 유전자 분석법이 도입돼 우연히 동일한 DNA형이 존재할 확률이 수천조분의 1로 줄었다"고 이 실장은 말한다.

네이버 '검토리' 블로그 화면(맨 위). 주 1회 독자들에게 발송하는 〈뉴스-프로스〉 뉴스레터(오른쪽).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와 검토리 블로그는 검찰이 국민과 소통하는 양 날개이기도 하다. 〈뉴스-프로스〉가 매주 3개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e메일 레터로 국민에게 차분히 다가가는 데 비해, 검토리 블로그에는 매일 3개의 글이 올라가고 댓글이 성실하게 달리는 게 강점이다. 검토리 블로그 담당 박채원 수사관은 말한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악플이 많이 달려요. 하지만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란 검토리의 구호에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국민과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G 글·최은숙 기자

네이버 검토리 블로그 blog.naver.com/spogood
다음 검토리 블로그 blog.daum.net/spogood
뉴스-프로스 enews.spo.go.kr

'아차, 4시 넘었네…' 깜박 잊은 국세 지로

이젠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 등 국세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낼 수 있게 됐다. 은행 마감시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납부에 비해서도 간편해 고령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모든 은행 고객들은 패밀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전국 매장 어디서나 국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 신당동에 사는 오정민(62) 씨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마감일까지 미루다가 은행 마감시간까지 놓쳐 가산금을 더해서 낸 적이 있다. 오 씨처럼 은행에 시간 맞춰 가지 못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최근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밤 10시부터 아침 9시 사이,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인터넷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 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9월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 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신한은행 고객만 패밀리마트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은행 고객들이 패밀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국세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편의점에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무서에서 보낸 2D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 있는 2D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현금카드(은행계좌에서 출금이 되는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국세가 자동이체된다. 자동이체 후 출력된 영수증을 받으면 납부가 끝난다.

자진 납부나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등 고지서가 없을 때도 납부가 가능하다. ARS 1588-9342로 2D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진납부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납부서를 휴대전화에 2D코드로 전송받아, 전송받은 화면을 인식기에 갖다 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2D코드는 2차원 코드 데이터를 양축으로 배열한 심볼로지(기호)로서 1차원 바코드보다 1백 배 많은 정보 저장과 암호화가 가능하다. 현재 전화비와 가스비 등 공과금, 지방세와 국세 등 대부분의 고지서에 2차원 코드가 들어간다.

자진 납부 · 고지서 분실해도 문제없이 납부 척척

편의점 납부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편의점은 장소만 제공할 뿐 편의점 단말기에는 어떤 개인정보도 저장되지 않으며 자료는 모두 해당 은행에서 관리된다. 또한 편의점 수납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보안성 심의를 완료한 것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국세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는데 납부 대상이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납부 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모든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현금 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는 할 수 없다.

편의점 국세 납부의 가장 큰 이점은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계좌의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징세과 이화순 사무관은 "은행의 공과금 수납기도 거래 은행만 이용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고, 인터넷 납부의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로그인부터 납부 완료까지 2, 3분 이상 소요되지만 편의점의 경우 20초 이내에 신속하게 납부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납부 확인에 2, 3일이 걸리지만 편의점에서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납부 확인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재산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점 납부를 실시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출

구직 등록기간 줄이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대출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요건이 9월 중순부터 완화됐다. 실직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살펴봤다.

지난 7월 말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게 된 김성준(가명·55)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두 딸과 지병으로 고생하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작은 회사에서 경비 일을 했던 김 씨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 다른 회사로 쉽게 취직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생활비는 바닥났고 아이들 교육비와 아내 병원비를 마련하는 게 막막해졌다.

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김 씨는 당분간만이라도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목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연 3.4% 저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올 1월부터 김 씨와 같은 실직가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는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연리 3.4퍼센트의 저리로 가구당 최대 6백만원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보증료 연 1퍼센트·별도부담)을 해주고 있다. 매달 6백~7백명이 꾸준히 이용할 정도로 실직자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경택 기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명의 실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출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이 엄격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지난 9월 중순 대출 신청 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했다.

실업자가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는 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키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대출의 문을 열었다. 이로써 약 30만명이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실업자가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는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실업자들이 구직 등록을 한 뒤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되도록 일찍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란 예전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급여 수급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저 구직급여일액(2만8천8백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1백50일 이하인 경우에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명의 실업자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복지사업국장은 "이번에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긴급 생계비가 필요했던 실직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workdream.net, welfare.kcomwel.or.kr

대입 상담 콜센터에서는 현직 교사가 직접 대입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전화 상담도 해준다.

대입 상담회 찾아 삼만리? 현직 교사들이 도와드려요

대학입시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9월 10일 문을 연 '대입 상담 콜센터'에서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선생님들이 대학입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

서울 목동에 사는 한영희(45) 씨는 고3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다. 한 씨의 딸은 고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3학년이 되면서 열심히 공부해 모의고사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했다.

한 씨는 아이의 성적이 올라 기분은 좋았지만 대학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졌다. 모의고사 점수에 비해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대학마다 입시 전형 방법이 달라 딸에게 유리한 입시 정보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는 유명 사설학원에 대입 상담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상담이나 컨설팅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백만원까지 달한다는 주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만 태웠다.

16개 시도교육청 상담교사단 연계 무료 상담 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씨와 같이 대학입시와 관련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상담교사단과 연계해 '대입 상담 콜센터'를 개설하고 무료 상담을 시작했다.

9월 초에 진행된 수시 1차 모집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시 2차 모집, 정시모집 등이 이어지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입 상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입 상담 콜센터'에서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현직 교사와 전직 대학입학사정관 등 8명으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이 상담을 하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3백48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교사단이 상담을 담당한다. 단,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담 교사들은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해 복수지원이나 희망 대학의 전형 방법 안내 및 대학 및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 상담을 해준다. 특히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 각 계열에 따라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어서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대학입학정보센터 홈페이지나 대교협 홈페이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대학입학 상담'에 접속해 통화 가능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대교협 상담팀 또는 시도 교육청 상담 교사단과 연결된다. 대입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대학입학정보센터 univ.kcue.or.kr | **대교협** kcue.or.kr
대입 상담 콜센터 Tel 1600-1615

동아DB

지난 8월 말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고교선택제 관련 입시설명회.
이젠 고교선택제 관련 입시 정보를 하이인포 사이트(사진 오른쪽)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

고교 선택시대… '하이인포'에 물어보세요

내년 서울지역 실시… 일반계 고교 정보사이트 문 열어

내년부터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된다. 학교 선택의 기회를 통해 원하는 학교로 입학을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고교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이인포를 주목하자.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을 두고 있는 성수현(37) 씨는 요즘 고등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에 바쁘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들을 수업 환경이 좋고 대학 진학률도 높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어서다.

새로 실시되는 고교선택제는 3단계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1단계에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울 전 지역에서 2개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정원의 20퍼센트를 여기에서 뽑는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2개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정원의 40퍼센트를 여기서 뽑는다. 1, 2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학교군의 학교로 임의 배정된다. 따라서 현재 중3 학생들부터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다른 학교군의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위치 검색에서 자세한 학교 정보까지 총망라

서울시교육청은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교 선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홍보사이트인 '하이인포' 사이트(hinfo.ssem.or.kr)를 9월 14일 개설했다.

자치구별로 학교가 표시돼 클릭 한 번만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지리위치정보시스템을 적용해 남녀공학, 남고, 여고 등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위치나 성별뿐 아니라 국립·공립·사립학교로 분류해 검색할 수도 있다.

원하는 학교를 클릭하면 약도와 함께 가까운 지하철역, 버스 노선, 스쿨버스 운행 여부 등이 나와 있다.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정보를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 특색 및 교육과정 정보, 진학 · 진로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진학지도 항목에는 지난해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과 입학사정관제 대비 방안 등이 소개돼 있어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정보라 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더욱 풍부한 정보를 원한다면 연결돼 있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등에 접속하면 된다.

하이인포 사이트에는 이 밖에도 '학교선택제 안내' '후기고 지원 안내' '학교유형별 전형계획'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학교선택제 안내에서는 고교 선택권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학교군 개념, 지원 배정 방법, 전입학 안내 등을 알려준다. 후기고 지원 안내는 입학원서 작성 방법부터 학군배정표, 학교일람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유형별 전형계획은 유형별 고등학교의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요약 등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을 준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청계천과 동대문의 화끈한 데이트

동대문 청계천 패션축제… 즉석 모델·의류 현장 판매도

'2009 동대문 청계천 패션축제'가 지난 10월 말 서울 청계천의 수상무대에서 열렸다.
인근 상인들과 고객,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가라앉은 청계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10월 말 서울 청계천 오간수교 일대는 음악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오간수교 수상무대에서 열린 '2009 동대문 청계천 패션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6시 40분, 사회를 맡은 개그맨 전창걸 씨가 축제 개막을 알리자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행사는 서울예술대 사물놀이팀의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동대문표 의상을 입은 패션모델들의 수준급 패션쇼, 하이틴 남성그룹 '씽'의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패션쇼는 남녀 캐주얼과 정장 등 누구나 쉽게 감각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특기할 점은 모델들이 걸치고 나온 의류와 액세서리들이 평화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협찬한 것이어서 바로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협찬한 의류를 입고 모델들이 멋진 패션쇼를 펼치자 관람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행사 이틀째인 24일에는 '나도 패션모델' 코너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대에 선 사람들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아주머니, 할머니, 어린이, 외국인 등 20~30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행사 당일에 즉석으로 섭외된 사람도 있고, 사전 홍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객과 관광객도 상당수다. 이들은 다양한 경품까지 받는 행운을 안았다.

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무대가 바뀔 때마다 박수갈채로 화답하고, 공연 중간에는 음악에 맞춰 어깨춤을 추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온 강혜나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왔는데 수상무대에서 패션쇼를 펼치니 더욱 멋져 보였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내년에도 이곳에서 패션축제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대문에서 패션상점을 운영하는 김시은 씨는 "이번 축제는 동대문 의류도 패션쇼를 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청계천이 다채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대문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한몫

동대문 청계천 패션축제는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와 동대문총상인연합회, '청계천사랑'의 공동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청계천과 전통시장의 볼거리를 연계해 일반인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계천과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용역 및 무대 설치 등 행사 진행을 맡았고, 동대문총상인연합회는 평화시장에서 1백 벌, 통일상가 40벌, 아트플라자 50벌 등 패션쇼 의상을 협찬했다. 청계천사랑은 의상 30벌, 모자 40개, 음료수 1천 개, 스카프 1천 장, 디지털초 5백 개 등의 경품과 이벤트비용 4백만원을 지원했다.

정석연 시장경영지원센터 원장은 "이번 축제에서 청계천과 전통시장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쇼핑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각광 받았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공연과 공동 이벤트, 세일행사 등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이번 축제에서 함께한 청계천과 전통시장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쇼핑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각광 받았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공연과 공동 이벤트, 세일행사 등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다.

이웅재 '청계천사랑' 회장

"상권 회복 위해 주말마다 장터 열고 싶다"

'청계천사랑'은 청계천 상권 회복을 위해 이곳 상인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민간단체다. 세운상가에서 30년 넘게 가전제품 판매업을 해온 이웅재(58) 청계천사랑 회장은 "청계천사랑이 추진하던 '청계천 관광 프로젝트'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경영지원센터, 동대문총상인연합회와 함께 이번 패션축제를 공동 주관하게 됐다"며 "이번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청계천에 쇼핑과 볼거리,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주말장터를 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대문 청계천 패션축제의 취지는.

청계천과 동대문 일대를 축제의 거리로 만들어 상권을 되살리는 것이다. 청계천과 동대문 상가를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들은 낮에는 시장 구경, 쇼핑 등을 하지만 밤에는 마땅히 즐길 만한 게 없다. 이들에게 청계천을 비즈니스와 쇼핑, 문화가 있는 관광명소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축제나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청계천사랑이 구상하고 있는 청계천 관광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청계천에서 시즌별 또는 월별로 테마를 정해 가장 한국적인 문화행사를 열어 관광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다. 동대문의 패션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도 좋은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인 패션행사뿐 아니라 청계천의 모든 다리에서 지역 농민들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주말장터도 열 계획이었다. 주말장터는 원래 이번부터 열려고 했는데 비용문제와 다른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청계천 상인, 고객, 관광객, 지역 농업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꾸준히 열고 싶다. 동대문 청계천 패션축제가 잘 정착돼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웅재 회장은 "청계천과 동대문 일대를 축제의 거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한 시장상인들의 반응은.

대다수가 좋은 반응을 보였다. 오랫동안 이 행사를 열기 위해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며 동참할 것을 독려해왔는데 상권을 살리자는 큰 뜻에 모두들 공감했다. 청계천, 동대문지역 구분 없이 다들 한마음으로 협조했다.

행사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행사를 치르기에는 많이 부족해 뜻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탰다. 차후에는 기획안을 꼼꼼히 만들어 정부와 관련 단체에 정식으로 비용 지원을 요청하려고 한다.

앞으로의 바람은.

군 제대 후 23세 때부터 세운상가에서 가전제품을 팔았다. 그것으로 내 가족을 부양하며 36년여 동안 청계천에서 터를 닦았다. 청계천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계천 상인들이 예전처럼 다시 한마음으로 즐겁게 살았으면 한다. 청계천 상인들은 변화보다 전통을 중요시한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청계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슬픈 얼굴로 이곳을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슬픔을 안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 청계천 상권을 일본처럼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부끄럽지 않도록 일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대구·광주 현대판 나제(羅濟)동맹 첨단과학기술벨트 '달빛 협력'

〈달구벌〉 〈빛고을〉

동아DB

10월 29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포스코건설과 돔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구시와 광주시. 왼쪽부터 대구시 권영세 행정부시장,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 광주시 박광태 시장.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공조관계를 지칭한 '달빛동맹'이란 신조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 두 도시의 협력관계가 삼국시대 신라·백제 간 '나제동맹'의 현대판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달빛동맹'을 아십니까.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달빛동맹'으로 지칭되는 두 도시의 공조는 지난 10월 29일 대구와 광주에 돔 야구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체결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이목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고위 인사들은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달빛동맹이 또 한차례 일을 냈다"고 평가했다. 두 도시는 포스코건설로부터 각각 4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돔 야구장을 주축으로 한 신도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18일 대구 서구구민운동장에서 호남향우회 주최로 약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영호남 가족 한마음 축제'를 열기도 한 두 도시의 협력 분야는 국책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 주력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도로 확장, 철도 신설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특히 광주의 대형 현안인 연구개발(R&D)특구 지정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11월 중 관련 용역이 끝나는 대로 첨단·하남·진곡산업단지 등 53평방킬로미터에 대해 R&D특구 지정을 신청해 과학연구구단지(Science Park)로 육성할 계획인데, 김범일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도 2011년쯤으로 예정된 대구의 R&D특구 지정 신청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10월 중순 두 도시가 공동으로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한 '광주·대구 도시형 첨단과학기술벨트 구상안'도 '달빛협력'의 대표적 사례다. 두 도시는 앞서 지난 7월 28일 의료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가 지난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는 데 한몫했다. 두 도시 간 물밑 접촉은 옛 기획예산처에서 20여 년간 함께 근무한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남동균 대구시 정무부시장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도시 협력 분야 확대… 한마음 축제 열기도

공교롭게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분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립과학관 건립 대상지도 대구, 광주 두 곳이다. 국립광주과학관(연면적 1만7천3백25평방미터)은 11월 3일 북구 오룡동에서 착공됐고, 국립대구과학관(연면적 2만3천9백97평방미터)은 이달 중순 달성군 유가면에서 착공된다. 두 도시 간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구경실련 등이 2006년부터 정기 모임을 갖는 등 민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G

글·정우천(문화일보 전국부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29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봐라.
보 조감도라카네.

꺽지
농어목 꺽지과 꺽지속
학명:Coreoperca herzi

와~ 멋있네~
이래서 명품보,
명품보 해쌌구만.

가시고기
큰가시고기목 큰가시고기과
학명:Pungitius sinensis

니 표정이
와 그렇노?

….

이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사는 와?

보 때문에 퇴적물질
쌓여서 드러버지면 우야노?
툭하면 준설공사 하는 거 아이가?

걱정도 팔자네. 여기 가동보 도면
좀 보고 말해라.

가동보

물 많아지면 훌떡
뒤집혀서 바닥부터
물이 흐르게 해놨다.

그러네!

빙글
빙글

습지대는 우얘 되노?
습지대 확 밀어뿌는 건
아니재?

여기 이렇게 습지대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만다꼬 걱정해쌌노?

앞으로는 그저 낚시꾼들만
조심하면 된다카이.

이렇게 해놓으면
낚시꾼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노?

잠비아 소년의 코리안 드림

경남 산청 지리산고 거쳐 서울대 합격

경남 산청군에 있는 작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잠비아 출신의 학생이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해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가난한 고국을 잘살게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낯선 한국땅을 밟은 켄트 카마숨바 군이다.

11월 1일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잠비아 출신의 지리산고 3학년 켄트 카마숨바 군이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푸어 컨추리(가난한 고국) 마니(많이) 마니 잘살게 하고 싶어요." 검은 피부에 곱슬머리의 그는 어눌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경남 산청군에 있는 대안학교 지리산고교에서 만난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의 켄트 카마숨바(20) 군.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그는 10월 30일 2010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외국인 특별전형(농경제사회학부)에 최종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서울대 외국인 특별전형에 해마다 1백여 명이 합격하지만 외국인이 한국 학교에 다니다 입학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리산고는 2004년 문을 연 대안학교로 전교생이 53명에 불과하다. 이 학교에서는 국내외에서 가난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 학비와 책값 등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공부시킨다. 카마숨바 군은 이 학교 개교 이래 첫 서울대 합격자다.

개교 이후 국내 학생만 받아오던 지리산고는 지난해부터 가난한 나라의 수재들을 받기 시작했다. 20여 저개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교사와 현지 교민회, 명예영사 등의 추천을 통해서다.

지난해 처음 뽑은 아몽 마티니에(19·코트디부아르), 누루 술찬(17·키르기스스탄)은 2학년이다. 본인만 잘하면 대학은 물론 박사과정까지 학비와 체재비를 대준다. 공부를 마치면 본국에 돌아가 자기 나라와 이웃을 돕는다는 조건이다.

카마숨바 군의 고향은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2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지다. 고향에서 그는 "들녘에서 딴 과일과 채소로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살았다"고 말한다. 혹독한 가난 속에 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우물까지 가서 식수를 길어와야 했고 온갖 심부름을 한 뒤에야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한 학년이 2천명이 넘는 '천막 교실'이었지만 두각을 나타내며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천막학교서 한국으로… "한국 와서 처음 세 끼 먹었어요"

하지만 대학 갈 돈이 없어 빈둥거렸다. 우연한 기회에 행운이 찾아왔다. 지리산고의 의뢰를 받고 한국에서 공부할 학생을 찾고 있던 현지의 백예철 선교사의 눈에 띈 것이다. 이전까지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그는 "올림픽을 치르고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이기에 유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낯선 땅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은 카마숨바 군은 비로소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지금은 삼겹살을 가장 좋아할 정도로 한국음식을 좋아한다.

수업은 외국인 학생 3명만 따로 모인 반에서 교사가 영어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한국어로 읽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카마숨바 군은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 집중수업을 받고 새벽까지 학교 독서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한국 학생과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에도 잘 적응했다. 노인회관을 찾아 목욕을 해주는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다.

지난 5월 서울대 홍보단의 지리산고 방문은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심어줬다. 같은 아프리카의 케냐 출신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카마숨바 군을 서울대에 추천한 지리산고 박해성(54) 교장은 "카마숨바는 가난한 고국을 잘살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나 최고경영자(CEO)가 꿈인 카마숨바 군은 "한국의 발전 과정을 제대로 배워 고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G

글과 사진 · 김상진(중앙일보 사회부문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하나의 욕심, 절반의 행복

글과 그림·최영순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수행처...
제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싸부님!
싸부님!

...

저 아래 마을 사람이
주고 간 '비료'라는 걸
썼더니요.

수확량이 무려 두 배나
됐습니다요!

거름은 쟤잽도
안 돼요...

이제 우린 부자가
될 겁니다.

남부럽지 않게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히히...

그렇다면
말이다...

네에~

내년부터 밭을 절반만
갈거라...

...

논밭은 잡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람은 탐욕 때문에 손해를 본다.
– <법구경>

동아DB

멋지다 박찬호 잘한다 추신수

코리안 메이저리거 박찬호·추신수 선수 팀 주축 선수로 맹활약!!

꿈에 그리던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부활 투구'를 선보인 박찬호에게는 동양인 투수 최다승이란 다음 목표가 남아 있다.

한국 야구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전승 우승에 이어 올 3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그와 함께 몇 년간 야구팬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났다. '코리안 메이저리거' 박찬호와 추신수의 활약 덕분이다.

올해 한국 야구는 '대박'을 터뜨렸다. 올 3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 여파로 국내 프로야구가 정규시즌 총 관중 5백92만여 명을 동원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그와 함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코리안 메이저리거'도 주목 대상이 됐다.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소속팀의 주축 선수로서 맹활약했기 때문이다.

박찬호 "동양인 투수 최다승 목표… 나는 아직 목마르다"

박찬호는 올 시즌 자신의 오랜 꿈 중 하나를 현실화했다. 바로 메이저리그 최강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 무대에 선 것이다. 비록 6차전(한국시간 11월 5일)까지 경기를 벌여 뉴욕 양키스에게 우승을 내주었지만 말이다. 지난 1994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처음 선 박찬호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이던 2006년에야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경기에 출전했다. 2008년엔 LA 다저스 소속으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총 4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그가 속했던 팀은 모두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올 시즌은 다르다. 박찬호가 선발은 아니지만 필리스의 찰리 매뉴얼 감독은 그를 '불펜의 핵'이라고 표현한다.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박찬호는 2차전과 4,5,6차전에 등판했다. 6차전을 제외하면 두 번째 투수였고, 점수 차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6차전에선 4번 타자 라이언 하워드의 2점포가 터지며 3대 7로 추격한 직후 등판이었다.

박찬호는 선발투수로서 이번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한국 시간) 워싱턴 내셔널스 전에 선발로 나와 1과 3분의 1이닝 동안 5실점하고 강판된 뒤 구원투수로 보직이 바뀌었다. 박찬호의 올 정규시즌 성적은 3승3패, 평균자책 4.43이다. 선발투수로서는 7게임에서 1승1패, 평균자책 7.29로 부진했던 반면 구원투수로서는 38게임에서 2승2패, 평균자책 2.52로 월등히 좋았다. 박찬호는 여전히 선발투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매뉴얼 감독은 '구원투수' 박찬호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박찬호는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전성기 못지않은 최고 시속 96마일(약 1백55킬로미터)의 강속구를 던졌다. 2002년 자유계약선수(FA)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간 6천5백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맺은 이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강속구다.

박찬호는 FA 계약을 앞두고 2000년과 2001년 2년 연속 2백20이닝 이상을 던지며 무리를 했고 이로 인해 허리와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렸다. 또 2006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시절엔 장출혈로 입원하기도 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의 강속구가 되살아났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은퇴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박찬호는 아직 이뤄야 할 목표가 남았다고 말한다. 바로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오가 갖고 있는 동양인 투수 최다승(1백23승) 기록이다. 올 시즌 3승을 보탠 박찬호는 내년 시즌 4승만 추가하면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승수를 쌓기에는 아무래도 선발투수가 구원투수보다 더 유리하다. 박찬호가 다시 선발투수를 꿈꾸는 이유다. 측근에 따르면 박찬호는 동양인 투수 최다승 기록을 세운 뒤 명예로운 은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노모처럼 미국의 마이너리그 팀을 매입해 구단주가 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추신수 "20-20클럽 가입… 아시안게임 출전하고 싶다"

11월 3일 금의환향한 추신수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값진 한 해였다. 팬들의 성원이 좋은 성적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 시즌 처음으로 '풀 타임 메이저리거'가 됐다. 전체 일정(1백62게임) 중 6게임을 뺀 1백56게임에 출전해 타율 0.300, 20홈런, 86타점, 21도루를 기록했다. 미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3할 타자가 됐고, 특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4명에 불과한 '20-20클럽(홈런과 도루 모두 20개 이상 기록)'에 가입했다.

'20-20클럽'이 공식 타이틀은 아니지만 장타력과 스피드를 겸비한 만능선수로서 인정받는 기준이다. 부산고에서 투수로도 활약했던 추신수는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빠른 송구로 주자를 잡아내는 수비 능력까지 갖췄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그를 '파이브 툴 플레이어(Five Tool Player·타격의 정확성, 장타력, 빠른 발, 수비 범위, 강한 어깨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선수)'로 부르는 이유다.

이런 활약으로 그는 인디언스의 중심 타자로 자리를 굳혔다. 팀 내 홈런, 타점, 장타율, 도루 1위, 타율 및 출루율 2위에 올랐다.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문 인디언스는 시즌 중반 라이언 가코, 빅터 마르티네스 등 주축 타자들을 트레이드하며 팀 전력을 재정비했지만 추신수만은 철저히 보호했다. 추신수는 입국 후 기자회견에서 "시즌 중 나를 모델로 한 버블 헤드 인형도 제작됐고, 내 사진이 야구장 안에 크게 붙어 있어 놀랐다"며 달라진 팀 내 위상을 전했다.

추신수의 올 시즌 연봉은 42만 달러로 메이저리그 선수 중 최하위권이다. 내년까지는 연봉 조정신청 자격이 없다. 하지만 추신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인디언스 구단이 내년 시즌 중반 다년 계약으로 추신수를 묶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추신수는 "한 팀에 오래 있고 싶다"며 인디언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내년 시즌을 마친 후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추신수가 정상급 메이저리거로서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가 병역문제에 구애되지 않고 메이저리거로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과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추신수는 "WBC 대회 때 좋은 경험과 추억을 남겼다. 기회가 된다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이 사용하는 방망이 손잡이 부분에 태극기를 붙일 만큼 애국심이 남다른 추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실력파 외야수로 오랫동안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G

글 · 고석태(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동아DB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0-20클럽' 가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추신수는 팀의 중심 타자로 자리를 굳혔다.

하지현 교수가 추천하는 〈런던을 속삭여줄게〉

언젠가 떠날 너에게 인문학 여행을 선물해줄게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에 대한 의지를 꿈꾼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로부터 또 다른 나를 찾고 싶다면, '언젠가 떠날 너에게' 썼다는 런던 여행기 〈런던을 속삭여줄게〉를 만나보자.

여행기는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대를, 다녀올 사람에게는 설렘을, 그리고 다녀온 사람에게는 추억을 선물해준다. 이렇듯 여행 책에는 여행에 대한 잡다한 정보에서부터 여행하는 과정 그리고 여행자의 인생철학까지 다양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최근 이런 일반 여행 책과는 다른 독특한 여행기가 나왔다. 정혜윤 CBS 라디오 PD가 지은 〈런던을 속삭여줄게〉다. 런던에 관한 여행기인 것 같은데 보여주거나 안내해주는 것이 아닌 '속삭여준다'니 제목부터 의미심장하다. 〈도시 심리학〉 〈소통의 기술〉 등 정신분석 관련 책들을 꾸준히 펴내온 하지현(41) 건국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보통의 여행기가 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맛볼 수 있었다"며 이 책을 추천했다.

"이 책엔 보통의 여행서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보들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런던의 야경이나 멋진 풍경을 담은 컬러사진 한 장 없어요. 대신 '런던'이란 도시를 축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역사적 지식과 책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특별하면서도 불친절한 인문학 여행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현 교수는 "이 책을 읽다 보면 런던이란 공간을 축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 교수는 이 책을 '불편하면서도 불친절한 인문학 여행기'라고 이름 붙였다. 보통의 여행기에서는 만날 수 없는 1백 권이 넘는 책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걸리버 여행기〉 〈오만과 편견〉 〈파브르 곤충기〉 등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책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세인트폴 대성당 등 런던의 명소를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듯 얽혀 있다.

그는 "마치 천 일 동안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아라비안나이트〉의 세헤라자데처럼 저자가 여행지를 통해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간을 축으로 역사와 철학 여행… 생각의 다양성 갖게 해"

"저자는 박물관이나 성당을 보면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역사를 되짚어가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 한 권 한 권을 인용해 풀어나가는 저자의 독서력과 그것을 연결하는 생각의 자유로움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국 역사와 언급된 책을 모르는 독자들에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군요."

그의 말처럼 관광명소에 불과한 장소들이 저자의 상상력과 독서력으로 역사적 인물이나 소설 주인공이 등장하는 무대로 변모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폭풍의 언덕〉과 〈제인 에어〉를 쓴 브론테 자매의 가족 이야기와 〈위대한 유산〉으로 유명한 찰스 디킨스의 치명적인 처제 사랑이 등장한다. 트래펄가 광장에서는 위대한 해군영웅 넬슨의 초라한 말년을 되돌아보다가 '철의 여인' 대처 총리,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이어진다.

하 교수는 "공간을 축으로 자유롭게 연상하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의 다양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권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을 가면 어디 음식이 싸고 맛있더라, 어떤 공연이 좋더라 등 여행정보만 중요하다고 여겨요. 물론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문화들을 마음껏 즐기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런던에서 트래펄가 광장의 넬슨 동상을 보게 된다면 영국 런던의 과거, 현재, 미래 등을 생각하며 마치 자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한다는 착각에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예나 지금이나 동료 잘 만나야

위계질서가 엄중한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벼슬살이에서는 상하(上下)의 궁합이 잘 맞아야 한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잘못 만날 경우 횡액(橫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동료 또한 잘 만나야 관운(官運)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다.

태종이 즉위한 이후 첫 번째 문과(1402년 임오 식년시)에서 장원급제한 사람은 신효(申曉)다. 신효를 보면 전형적으로 윗사람(국왕이나 상관)과 궁합이 맞지 않았고 동료 복(福) 또한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문과에 급제한 지 2년 후인 1404년(태종 4년) 1월 신효는 사간원(司諫院) 우정언(右正言 · 정6품)으로 발령을 받는다. 장원급제자로서 이제 막 조선 관리의 '엘리트 코스'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사간원은 일찍부터 국왕을 향해 간(諫)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우정언의 직급은 낮아도 국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신효는 사간원 동료였던 좌정언(左正言) 노이(盧異)로 인해 관직생활을 일찌감치 끝맺게 된다. 노이는 신효보다 6년 빠른 1396년(태조 5년) 병자 식년시에서 급제해 사관(史官)을 지냈고, 이때 좌정언으로 있었다. 태종은 직언(直言)을 서슴지 않는 노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기개를 아껴 사간원에 배치했다.

노이의 지나친 강직(剛直)이 문제였다. 노이는 이신과 김보해라는 장수가 임금의 총애를 얻기 위해 여색(女色)을 상납하는 것을 사간원이 알고 묵인하는 것은 안 되니 문제를 제기해 이신과 김보해를 처벌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하지만 주상의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 의논에 참여치 않겠다고 했다. 오직 우정언 신효만이 노이의 손을 들어주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1404년 4월 하순경의 일이다.

얼마 후에는 선배격인 좌헌납(左獻納 · 정5품) 박초(朴礎)도 뜻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박초는 엉뚱하게도 대선배인 좌사간(左司諫 · 종3품) 조휴(趙休) 등을 탄핵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이는 사간원의 직무는 시정(時政)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지 동료를 탄핵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반대했다. 심성이 곧지 못했던 박초는 자신의 뜻이 좌절되자 거꾸로 조휴 등과 결탁해 노이와 심효가 지존(至尊 · 임금)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죄목을 걸어 두 사람을 탄핵했다.

5월 1일 노이와 심효를 탄핵하는 조휴 등의 상소가 올라오자 태종은 아무런 답도 내리지 않았다. 노이와 신효가 문제 삼으려 한 여색 상납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틀 후 재차 사간원의 상소가 올라오자 태종은 노이와 심효 두 사람을 직접 불러 전후 사정을 듣는다. 두 사람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임금을 위해서라도 여색문제는 직간(直諫)하는 것이 자신들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고민에 빠진 태종은 두 사람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다. 결국 노이는 직첩(관리자격증)을 회수당했고 자손들의 관리 진출 길도 영구적으로 제한당했다. 심효의 경우 주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연안부(延安府)에 안치됐다. 유배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두 사람 모두 태종의 명에 따라 사면됐다.

일러스트 · 이우정

태종 '여색문제' 직간하다 유배형 받아

이후 신효의 행적이 흥미롭다. 유배에서 풀려난 신효는 서울 근처 행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면서 한양 도성은 절대 밟지 않았다. 세조 때 81세로 죽었다 하니 세종 시대도 외면한 셈이다. 사실 세종은 신효를 등용할 생각이 있었다. 세종 8년(1426) 12월 14일 세종이 신효를 교수관(敎授官)이라는 자리에 복직시키려 하자 사헌부에서 이를 지적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세종은 '지존 비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신하들의 반대에 밀려 결국 신효를 쓰지 못했다.

반면에 태조 2년(1393) 조선 최초의 문과에서 여덟 번째로 급제한 신효의 형 신개(申槩 · 1374~1446)는 기개와 학식, 그리고 이재(吏才)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 세종 때 좌의정에까지 오른다. 태조가 실록을 보려 하자 좌절시킨 기개, 세종의 필생의 업적인 〈고려사〉 편찬을 주도한 학식, 그리고 관찰사와 판서 등을 두루 역임한 이재 등이 그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강직한 성품의 신효가 일찍부터 엉뚱한 일에 휘말려 시대와 불화(不和)한 점은 개인을 위해서나 조선을 위해서나 안타까운 일이다. G

2009년판 효녀 심청 쿠데타를 진압하라

뮤지컬 '청 이야기'

일시	11월 14일(토)~22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7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02-501-7888 www.ntok.go.kr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 '심청전'을 뮤지컬로 해석한 '청 이야기'가 11월 14일 막을 올린다. 이 작품은 미국식 뮤지컬에 익숙한 관객에게 한국적인 뮤지컬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대에 오른 가수와 배우는 관객들과 대화하듯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가수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처럼 노래로 이야기를 전하고, 배우는 노래에 맞춰 극중 인물을 연기한다. 배우들이 공연 내내 무대를 떠나지 않는 것도 이색적이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극을 지켜보고, 노래하고, 관찰하며 연기를 선보인다.

'청 이야기'에는 노래가 중심이 되는 송-스루(Song-Through) 형식을 도입, 총 41곡의 뮤직넘버가 등장한다. 여기에 양악과 국악 악기로 구성된 12인조 라이브 밴드가 신비감을 더한다. 수묵화 톤의 영상도 볼거리다. 일례로 청이 인당수에 빠질 때 바다의 일렁임 대신 먹이 튀는 그림을 사용한다.

내용 또한 고전 '심청전'과 사뭇 다르다. 청은 인당수에 빠진 후 왕자 희원과 함께 입궁해 조정의 쿠데타를 진압하는 역동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국모 등극'을 눈앞에 두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연은 고전 심청의 현대적 해석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인공 '청' 역은 '바람의 나라'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김혜원이 맡았고, 왕자 '희원' 역은 서울예술단의 신예 장현덕, 임병근이 번갈아 연기한다. 뮤지컬 '쓰릴 미' '파이브 코스 러브'로 이름을 알린 이종석 연출의 '청 이야기'에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등의 음악과 '세월이 가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등의 가요를 만든 작곡가 최귀섭 씨도 참여한다.

연출가 이종석 씨는 "가장 익숙한 소재와 한국적 표현 양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잊고 있던 미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발레 '왕자 호동'

일시	11월 18일(수)~22일(일) 평일 ·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VIP석 10만원,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C석 5천원
문의	02-587-6181 www.sac.or.kr

국립발레단이 민족의 기상이 드높았던 고구려를 배경으로 죽어서 이루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발레로 풀어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기치 아래 민족적 정서를 담아내는 데 공을 들인 이 공연은 국수호 감독이 연출을, 국립발레단의 문병남 부예술감독이 안무를 맡았다. 또한 '홍등' '신데렐라' 등 많은 작품에서 감각적인 예술성을 선보인 제롬 캐플랑이 의상 디자인을 맡아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뮤지컬 '달콤한 나의 도시'

일시	11월 13일(금)~12월 31일(목)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 · 공휴일 오후 2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의	1544-5955 www.theateryong.or.kr

2009 창작팩토리 우수작품 제작 지원에 당선된 작품. 25만 부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이현의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를 연출가 황재현이 무대에 어울리도록 각색해 뮤지컬로 재탄생시켰다. 여기에 드라마 '파리의 연인' '온 에어' 등의 작곡가 박세준이 가세해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적 영감을 불어넣었다. 탄탄한 대본과 아름다운 음악, 상상력 넘치는 무대가 만난 뮤지컬은 원작과는 또 다른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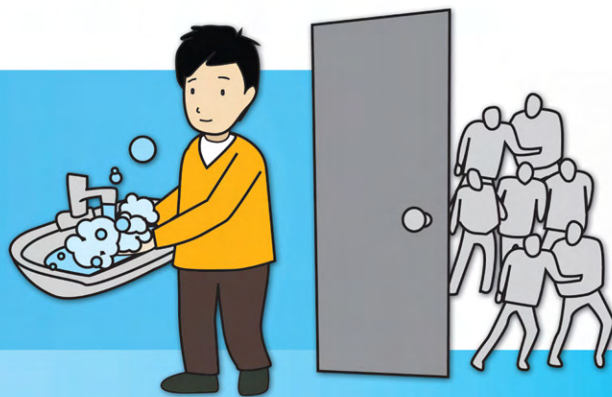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www.cdc.go.kr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홍보-0903-55-04

S.M.Entertainment 와 함께합니다.

담아두고 싶은 아름다운 순간, 헌혈을 위한 1초의 찡그림!

헌혈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

고객지원센터 1600-3705